

멸종위기 ‘제주 흑우’ 17년만에 복원

박세필 연구팀, 초급속 냉·해동 기술 세계최초 개발



지난 2009년 3월과 9월 복제한 흑우 씨수소인 ‘흑영돌이’와 ‘흑울돌이’, 이번엔 새롭게 복제한 ‘흑우순이’의 모습이다. <홍보팀 제공>

박세필 (생명공학부 교수)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복제수정란 초급속 냉·해동 기술을 통해 멸종위기의 제주 흑우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박세필 교수팀과 (주)미래생명공학연구소(소장 김은영) 등은 지난달 13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급속 냉·해동 신기술을 통해 제주 흑우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제주 흑우를 도축하기 전 우수한 체세포(귀세포) 유전자원을

능해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2~5시간 소요되는 기존의 완만 동결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 한데다 해동시 생존율이 50% 이하로 낮아 대리모 이식전 현미경으로 생존한 복제수정란을 골라 새로운 이식용 스트로에 옮겨야 하는 등 실용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 2~5시간 걸리던 냉동시간을 15분만에 초급속으로 냉동시키고 해동도 1분만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해동 후 복제수정란의 생존율이 기존 기술로는 50% 미만이던 것을 80~90%까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신기술이다. 이번 연구성과는 전자 감별 유전자 분석 방법을 이용해 씨암소 체세포와 복제소 ‘흑우순이’ 귀세포의 유전자가 일치함을 확인함으로써 그 결과를 인정받았다. 국내 동물번식학회에도 연구결과가 게재됐다. 박 교수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초급속 냉동, 초간편 해동 이식기술로 언제든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실용화·산업화 기반이 구축됐다”며 “이미 생산해 냉동보관하고 있는 100여 개의 복제 수정란은 희망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무관급 이상 직원 인사 7월 1일자로 단행

교무과장 김선욱·학생복지과장 윤석훈·기획평가과장 조용준·총무과장 강성진



제주대가 7월 1일자로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서기관 4명과 사

무관 3명에 대한 중폭 인사가 이뤄졌다. △교무과장-김선욱 서기관 △학

생복지과장-윤석훈 서기관 △기획

평가과장-조용준 서기관 △총무과

장-강성진 서기관 △법정대학-양유호 행정사무관 △수업과대학 행정실장-이남욱 행정사무관 △사무과

시 설과-오순철 시설사무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오순은 교수)가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의 협조로 지난달 23-24일 여대생 극기훈련 자기극복 캠프를 열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제공>

감귤 유전체 사업 유치... 2년간 3억원 지원

제주대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에 지원하는 차세대 유전체사업 분야에서 제주 재래감귤인 병굴의 유전체 연구사업을 유치해 연구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제주 재래 감귤의 유전체 연구

청소노동자도 학교 가족

근무환경 열악... 휴게공간 개선 필요

청소노동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관리실이 열악하게 방치돼 있다. >관련기사 8면 관리실은 청소노동자들이 점심시간 등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하는 곳으로 각 단과대학과 체육관, 도서관 등 건물에 마련돼 있다. 새로 지은 건물의 관리실은 비교적 쾌적하지만 대부분 관리실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정도로 열악하다. 단과대학 관리실은 대부분 계단 밑이나 건물의 자투리 공간을 사용한다. 특히 계단 밑에 있는 관리실들은 환기가 안 돼 벽에 곰팡이가 있고 공간이 낮아서 제대로 허리를 펼 수 없다. 해양과학대학 1·3호관 관리실은 성인 여성이 발을 뺀고 누우면 발이 밖으로 나올 정도로 좁다. 이곳 청소노동자들은 겨울이면 비좁은 곳에서 가스난로를 틀고 지낸다. 여름이면 에어컨 실외기에서 열기가 올라와 찜통이 되는 것을 참아야 한다. 감귤화훼센터 관리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비좁은 관리실 내에 창고에 놓여야 할 청소도구와 비품들이 쌓여 있다. 더구나 관리실 안쪽 방에는 밤샘 실험을 하는 학생들의 숙직실 있다. 때문에 이곳 청소노동자는 마음 놓고 옷을 갈아입기조차 어렵다. 공과대학 관리실은 공간이 넓지만 소방감지기와 인터넷 전용회선 중앙처리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쉬기 어려울 정도로 시끄러운 기계소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한 청소노동자는 “청소 후 짐을 내려 쉬는데 좁은 공간에 환기가 안돼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있어서 골병이 날 것 같다”며 “행정실에 남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봤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샤워실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소노동자들은 쓰레기와 먼지 때문에 몸에 더러워지고 청소 후 땀냄새가 되지

사령

현성미(대학원 언론홍보학과) 6월 8일자로 사회부장으로 임명함

김소영(국어국문 1) 7월 1일자로 수습기자로 임명함

제31회 백록문학상 소설 당선작 ‘클라라 하스킬을 위한 하루’ 외 시 가작 2편 ▶ 4면~6면

해외견학 및 연수, 기업방문

세계자연유산유적지, 세계문화유산유적지, 세계유명명산, 해외감귤산업체방문, 해외물산업체방문
농업, 축산업기관방문 및 연수, 산업별 박람회 - 반도체, 기계, 건축, 제약, 바이오, 식품 등..

중국

- 북경/만리장성 4일
제주-북경-천안문광장-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
- 상해/항주/소주 4일
제주-상해-소주절정원-항주서호-황포강유람선-외탄야경
- 상해/장가계 5일
제주-상해-장가계-천자산-보봉호-황룡동굴-백룡엘리베이터

일본

- 동경/후지산 4일
제주-나리타-외쿠타니계곡-하코네유람선-긴자거리-신주구거리
- 오사카/나라/코토 4일
제주-오사카-동대사-청수사-오사카성-고베

대만

4일
제주-부산-타이베이-화롄-태각로-아류-양명산온천-국립고궁박물관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일
제주-인천-싱가폴-바탐섬-조호바루-센토사섬

필리핀

5일
마닐라
제주-인천-마닐라-팍상한폭포-따알화산-히든벨리

인도

8일
인도/젠지스
제주-인천-델리-젠지스강-황금사원-타지마할

베트남

5일
베트남북부/하롱베이
제주-인천-하노이-하롱베이선상유람(세계문화유산)-땀목

홍콩

4일
제주-인천-홍콩-해양공원-리펄스베이-빅토리아산정

호주

6일
시드니

미주

미동부

미서부

케나다

8일

유럽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8일

사 설

대학에 ‘방학(放學)’은 없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방학’은 참으로 긴 기간이다. 수업일수가 학기당 16주로 정해져 있으니까 1년이면 32주 정도 강의 및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1년 52주 중에서 나머지 20주, 약 5개월 정도는 방학에 해당하는 셈이다.

어쨌든 ‘放學’ 이니까 그냥 쉬자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쉬는 거라면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쉬는 거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당할까? 논란이 있겠지만, 7일에 하루 쉬는 정도의 산법을 적용해서 1년 365일의 7분의 1, 약 52일 정도가 타당하지 않을까? 1달 반 정도, 그렇다면 지금의 5개월여의 방학기간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방학(放學)’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放學’은 그냥 쉬는 기간일 수가 없다. 대학생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방학기간이 지나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사실 그 기간에 교양 뿐 아니라 전공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도 급속도로 축적된다. 그 기간은 휴가기간이 아니라 연구, 학습기간이기 때문이다.

‘방학’ 동안에는 교육, 학습, 연구의 형태가 변경되는 것뿐이다. 강의실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어쨌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수요에 맞추어 개별적인 교육을 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개인의 자기주도형 학습을 강의실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다.

강의실 교육에서 부족한, 이런 모든 것이 ‘방학’ 동안에 이루어진다. 교수들도, 학생들도 ‘강의’라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연구, 학습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강의실이나 책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삶의 현장을 체험할 수도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방학’ 기간이 지나는 이런 교육적 성격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방학’은 교육의 방임기간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교육기간이라는 관점에서 지원책을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역설적인 것은 제도적 개입이 늘어날수록 개인적 수요에 적합한 연구, 학습의 공간이 축소될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그 사이의 조정이 역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상상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조정책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방학 기간 동안,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늘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은 ‘방학’이 그냥 휴가기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율학습 기간’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 문자 그대로의 ‘放學’은 없다. 그렇게 긴 ‘방학’으로는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보정할 수 없다. 제주대 신문은 앞으로 방학 동안에도 발간될 것이다.

피터의 법칙

미국의 대부분 지방정부는 그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직인 지방정부 판사, 검찰총장은 물론 법무장관, 경찰국장, 총무처장관, 재무국장, 세무국장, 감사원장 등을 직접선거에 의한 뽑는 선출직 공무원들이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은 위보다 아래에 있어야 좋고, 따라서 선출직이 많을수록 권력이나 권한이 분산되어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에서이다.

2009년 11월 뉴욕시 선거에는 중국계 시민권자이며 전 시의원 출신인 존 리우가 감사원장에 당선되었는데 청렴 이미지와 함께 차기 뉴욕시장에 도전하는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존 리우의 뉴욕시 감사원장은 선출직들인 시장, 그리고 공약홍보관 다음인 서열 3위의 매우 중요한 직책인데 시장과 견제와 긴장관계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지방정부의 감사원은 집행부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제3의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의 감사위원회와는 격이 다르다.

요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도지사 최측근이자 선거의 일등공신이 내정되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 도지사로부터 임명되고 직원들도 집행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빚어왔었다. 물론 감사위원회의 그 직무 수행에 집행부나 의회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그

신념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도지사, 실·국장, 의회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형식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지사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였던 로렌스 피터는 권력자와 가까운 무능력한 책임자들 때문에 조직이 망가져가는 이유를 ‘피터의 법칙’이란 원리로 설명하였다. 그는 한 조직 내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무능력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부서는 무능한 자들로 채워지고 결국 그 조직은 퇴보가 된다고 설명한다. 결국 사회나 조직이 창의적인 진보를 하려면 경쟁과 조직의 개방성, 리더의 품격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이 안 되면 불행한 개인을 만들지만, 높은 자리에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차지하면 불행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도지사의 최측근이 능력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다만 다른 인사와는 달리 감사위원장이 도지사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반대로 한 함은 감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집행부와 의회를 견제할 수 있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과감한 개혁 전도사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순진한 생각일까?

“캠퍼스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은 우리 모두의 책임”

초록캠퍼스와 연애하기 운동본부 출범

환경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제주대를 초록캠퍼스를 만들겠다며 뭉친 이들이 있다. 바로 ‘초록캠퍼스와 연애하기 운동본부’ 팀이다. 이들은 사회학과에서 개설된 ‘사회운동론’ 수업을 통해 처음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이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운동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라는 환경단체의 지원을 받아 캠퍼스 환경운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연애하기 운동본부팀을 이끌고 있는 강형주(사회 3)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기존 환경 운동들은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하는 운동인 만큼 쉽고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해요”

강씨는 연애하기 운동본부팀에 목표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애하기라는 이름도 탄생하게 됐다.단순한 행동강령도 연애 약속으로, 서명을 받기 위한 종이도 연애 계약서라

는 이름으로 탈바꿈했다. 또 ‘자신만의 환경 사랑법’이라는 방식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사회운동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모든 것이 서툴러요. 그렇지만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즐기면서 하고 있죠”

이들 대부분이 사회운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다보니 어려움도 많았다. 특히 지원금을 받아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 헤매기 일쑤였다. 그렇지만 구성원 모두가 의견을 조율하고,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또 강씨는 이러한 경험들을 쌓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사회운동을 즐긴다고 말한다.

“학교가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곳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처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초록캠퍼스와 연애하기 운동본부’ 팀이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버리고 있다.

에너지는 자신들이 내지 않는 생각들이 크다. 그렇지만 결국 낭비되는 에너지비용은 학생들에 등록금으로 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강씨는 에너지를 절약해 아끼면 그 비용만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환경 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절약들이 환경을 보호하

는 첫걸음이지요” 이들은 환경보호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쉽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빈 강의실을 절약해 아끼면 그 비용만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구나 할 수 있고, 쉬운 방법이 이들의 환경사랑법이다.

강보배 기자

2011 제주어 말하기 대회 개최

신성여고 강은지 대상… 23개팀 53명 참가

‘2011 제주어 말하기 대회’가 ‘옛 어지는 제돛말 혼디 살리게마썸’을 주제로 지난달 17일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복)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로 나느니 설토 나켄 해수다’를 발표한 신성여고 2학년 강은지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총장상과 30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았다.

개교 59돌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모두 25개팀 53명이 참가해 10일 예선 대회를 가졌다. 예선에서 올라온 9개팀은 이날 본선대회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노래로 제주

어를 지켜나가는 ‘투렘브러더스’가 특별출연해 ‘이녁 가심 소꿉애’, ‘몽생이의 꿈’, ‘느 어명호당’ 등을 불러 갈채를 받았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금금상=현종건·김소연·송진경(백록초등학교 6년) 은은상=한나연·문연정(제물교 5), 김범경·오유민·김경민(익귀교 2) 동등상=노유민·강지원(영평교 6), 김민수(제주외고 1), 박도원(제주여고 1), 강남경(대기고 2), 권정임·이영현·정수진(서귀중앙여중 3) 신성여고교사=고지숙(신성여고) 교사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고호성 편집국장 강보배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 미디어<JUMP> news.jeju.ac.kr

2011년도 예비군훈련 공고

- 훈련기간 : 2010. 7. 4~15(토,일요일 제외)
- 장 소 : 해병92대대 예비군훈련장(신제주 정실)
- 훈련대상: 전역1~6년차 편성자 전원(계급 구분 없음)
- 교육훈련 일차 및 학급편성

일자	훈련 대상 대학(원)		인원	대상
	대학	학과(부)		
2011.07.04(월)	인문대학	전 학 과	227	284
		예술학부	36	
		전 학 과	21	
2011.07.05(화)	교육대학	전 학 과	21	299
2011.07.06(수)	경상대학(A)	전학과(야간포함)	299	308
		경.회,경영정보,관광개발,경영정보,경제,경영,경영(야),관광경영	308	
		관광관광개발학과,관광경영무역,회계,회계(야)	241	
2011.07.07(목)	수 의 과 대 학 의과대학	전 학 과	29	305
		전 학 과	3	
		간호대학	4	
		사범대학	155	
		컴퓨터교육과	24	
2011.07.08(금)	사범대학	국어, 사회, 수학, 영어, 윤리, 과학	144	320
2011.07.11(월)	생명과학대학	전 학 과	176	328
		전 학 과	328	
		전 학 과	278	
2011.07.12(화)	자연과학대학	전 학 과	278	278
2011.07.13(수)	공과대학(A)	건축, 기계, 메카, 멀티, 문화, 생명화학, 식품생명, 전자, 전기전자,	329	329
2011.07.14(목)	공과대학(B)	에너지, 전기, 컴퓨터, 통신,	322	322
2011.07.15(금)	대학원(원)	대원,교육,경영,행정,산업,통역,의학,법학,사회	238	248
		교직원	10	
계			3021	
※ 교육훈련대상자 명부 참조.(학과별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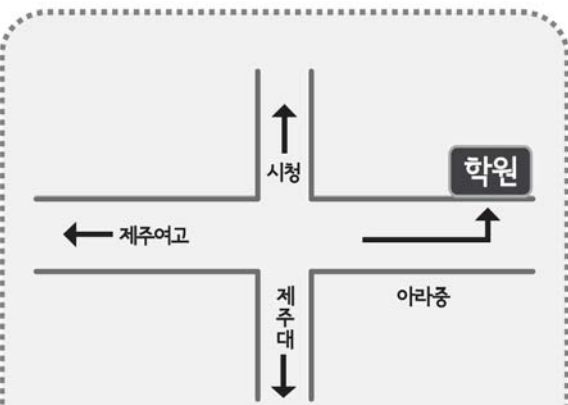
※ 교육훈련대상자 명부 참조.(학과별 발송)

- 유의사항
- 가. 훈련은 소속대학 및 학부(과)별 해당일자에 참석 할 것. (불참자 보충교육 훈련장소는 해병91대대에서 실시함)
- 나. 당일 09:00까지 시간임수 개별임소 할 것. ※ 지각자 처리 기준 : 30분 이내 1시간 추가, 30분 이후 임소불가
- 다. 중식 제공(도시락) 자참자는 중식비 지급(5,000원) 및 교통비 지급(4,000원) ※ 학과단위 단체 도시락 반입 할 수 없음(허가 불가 함)
- 라. 예비군복 착용(규정된 복장 착용)
-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지참.
- 바. 정당한 사유(질병)로 인하여 훈련연기 및 일시 변경을 원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010.6.11까지 연기 및 변경원을 제출할 것.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연대 구대754-2288 ~ 9로 문의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총장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다단계 허황된 유혹... ‘절망의 늪’으로

대학가 다단계판매 기승

청년층의 취업난을 틈타 아르바이트나 재택 부업 등 취업을 병자한 불법 다단계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학생들의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여름 방학을 맞아 학자금 마련이나 용돈을 모으려는 대학생들에게 단시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유혹해 사재기와 강제 구매, 대출 등을 유도하고 있다. 얼마 전 A씨는 친구가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러나 정작 도착한 장소는 한 다단계 업체의 사업설명회장이었다. 이 다단계 업체는 자신들은 다단계 업체가 아닌 ‘네

트워크 마케팅’ 업체라 칭하며,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월 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길 권했다. 그들은 A씨에게 가입조건으로 40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을 요구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A씨에게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의 7대 유형으로 △단기간 고수익 미끼로 유인 △취업 명목으로 가입유도 △턱없이 비싼 가격 △상품거래 없는 금전거래 △반품·환불 불가 △교육·합숙 강요 등을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 시·도, 공제조합 등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본의 아니게 업체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불법 다단계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작년 90개 다단계업체의 총매출액은 2조5334억원으로 전년 2조2586억원에 비해 2748억원(11.2%) 증가했다. 수당을 받은 판매원 가운데 상위 1% 미만의 판매원이 지급받은 후원수

당은 4541억원으로 전체 후원수당의 56.0%를 가져갔다. 즉 99%의 판매원이 나머지 44%의 후원수당을 나눠 가진 셈이다. 1~6% 미만 판매원은 396만원, 6~30% 미만 판매원은 46만원, 30~60% 미만 판매원은 7만 3000원, 60~100% 판매원은 1만 7000원 등의 수당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특히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60%가 ‘친구’였다. 실제로 다단계를 경험했던 법정대학의 한 학생은 “친구의 부탁으로 물건을 사다가 다단계를 시작했다”며 “돈을 벌기는 커녕 다단계로 인해 돈뿐만 아니라 친구도 잃게 됐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이러닝 업데이트 해주세요”

67개 중 36개 강좌가 3년전 제작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은 작년 겨울방학에 이러닝 강의를 듣다가 황당함을 느꼈다. 강의는 분명 2010년도 강의인데 모니터 속의 교수는 몇 년 전의 이슈들을 지금 시기에 맞는 적절한 해석 없이 강의했기 때문이다. A양은 “강의가 몇 년 전의 것을 그대로 쓰는 것 같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간과한 강의가 진부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A양의 사례처럼 교수들이 한번 만들어 놓은 강의를 바꾸지 않고 계속 재탕삼탕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닝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고 있는 강의는 총 67개다. 이 중 업그레이드 안 한지 3년 이상 된 강의는 총 36개로 절반이 넘는다. 2007년도 처음 강의를 개설하고 단 한번도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강의가 4개나 있었다.

이러닝센터 측은 예산이 부족해서 콘텐츠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경호(이러닝 센터)씨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닝 강의를 업데이트 못한 적은 없었다”며 “교수들이 강의 업데이트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산이라도 잡아서 한다”고 말했다.

김경연(전자공학과 교수)정보통신 원장은 “이러닝센터에서 이러닝 강의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권고하지는 않는다”며 “강의의 업그레이드 여부는 교수들의 개인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한편 시기에 상관없이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강의는 수시로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닝 강의 를 맡고 있는 한 교수는 “시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론들에 대해 큰 틀에서 그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성미 기자



지난달 8일 현성수 전 국회재경위 수석 전문위원이 국제법무전문가과정 첫 강의를 진행했다.

법전원, ‘국제법무전문가과정’ 개설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창근)이 ‘국제법무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8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변정일)와 공동 주관으로 ‘국제법무전문가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번 과정은 JDC,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개발공사 등 제주도의 해외투자 및 그 유치와 관련된 도내 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

해 실무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제법무전문가과정은 첫 강좌로 지난달 8일 현성수 전 국회재경위 수석 전문위원(차관보)을 초빙해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담을 바탕으로 국제정책 결정과정, 입법 및 개정을 위한 법안 처리전략을 소개했다. 또 제2차 강좌로는 지난달 28일 허언국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을 초빙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다.

국내 미기록종 발견

오홍식 교수

오홍식 교수가 국내 미기록종 ‘제주작은뿔치’와 애기박쥐에 속하는 ‘Vespertilio sinensis’를 발견했다.

오 교수는 지난해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한반도 포유류 보전·관리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던 중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오 교수는 작은윗수염박쥐, 큰발윗수염박쥐, 시궁쥐의 계통유연관계 및 비단털쥐, 비단털쥐의 분포와 분류학적 위치가 불분명한 다수의 한반도 자생 포유류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을 밝히기도 했다.

뉴스 클리핑



아라현, 인재양성관 건립기금 1000만원 기탁

제주대 출신 아라현(회장 김명호)이 인재양성관(개교60주년기념관) 건립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아라현은 제주대출신 출신 공

인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졸업생들로 구성됐다. 한편 아라현은 지난해에도 경상대학교 고신만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외국 대학과 학술 교류 발벗고 나선다

국립태평양대·천진재경대·텍사스A&M대·메이오대

제주대가 외국 대학과의 학술 교류 및 학생 교류 협정 체결에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대 지난달 11일 러시아 국립태평양대학교(Pacific National University)와 두 대학간의 상호협력력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또 제주대는 지난달 12일에는 중국 천진재경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에는 미국 텍사스A&M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 일본 메이오대학교 세나하 에이키치 총장과 상호협력력을 통해 학술적, 문화적 교류를 위한 학술교류협정과 학생교류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가 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과 기관은 19개국 113개 대학, 21개 기관으로 늘었다.

제주대가 외국 대학들과 잇따라 협정을 맺은 것은 국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제주대는 이번 교류협정을 통해 러시아 국립태평양대학과는 교수·연구·학생 교류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고, 중국 천진재경대학과는 교수, 교직원 및 학생 교류,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공동회의, 워크숍, 실습 등 학술활동 교류, 교과과정 개발과 실행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대는 텍사스A&M대(Commerce)와는 학생 교류 및 해외유학 프로그램, 교수 교류, 상호 관심 분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공동세미나, 워크숍 및 학술회의에 학생과 교수의 참가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일본 메이오대학과는 연간 5명 이내의 학생들을 1년 간 교환학생으로 상대방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대는 앞으로도 외국대학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저소득층·소외계층 장학지원 확대

제주대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복지장학 혜택을 확대한다. 제주대는 가계곤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복지장학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 2학기에 5억여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대의 저소득층 학생 복지장학금은 모두 50억원 규모로 늘어 지난해 37억5000만원보다 33% 증가하게 됐다. 제주대는 이와 함께 장학 혜택 확대를 위해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2010년 32%에서 내년에는 40%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해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장학사정관을 두어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을 선발, 데이테이스화함으로써 장학 혜택을 최대한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포자녀와 소외계층 자녀에게도 대학 장학금이 지급된다. 제주대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전형에서 선발된 학생 중 ‘교포 자녀’와 ‘소외계층 학생’에게 처음으로 ‘미래희망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대는 그동안 재일본 제주출신 교포들로부터 많은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교포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미미한 실정에서 재일본 제주출신 교포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생활관비를 지원함으로써 잊혀져가는 교향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복지 시설에서 고교를 졸업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도 대학 장학금과 생활관비를 지원해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총동창회, 제11회 동문 체육대회 개최

총동창회(회장 김태환)는 지난 달 12일 제11회 제주대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모교의 대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대학교 동문과 가족, 재학생 등 약 2,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축구와 단체줄넘기, 여자승부차기, 제기차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27개 학과가 참가, 종합 우승은 농림경제학과, 종합 3위는 법학과, 종합 3위는 체육학과가 차지했다.

관광·레저 인재양성센터, 사업 실적 평가 7위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가 한국연구재단 평가에서 조직 운영 및 홍보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센터장 장성수 교수)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2차년도 사업 실적에 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결과 전국 21개 인재양성센터 중에서 7위를 차지했다.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

센터는 연간 사업예산이 25억원으로, 다른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센터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는 5가지 평가분야 중 조직운영과 홍보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마케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31회 백록문학상 】

클라라 하스킬을 위한 하루

소설 당선작

김소학 국어국문 4

1. 텔레비전을 틀자마자 인혜는 이제 짜증부터 나기 시작했다.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여배우 L의 자살과 그에 관련된 소식들이 시간대를 번갈아 가며 방송되는 탓에 채널을 돌릴 때마다 이를 어김없이 보게 되기 때문이었다. 별다른 이야기도 없고 달라진 소식도 없건만 각 채널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멘트만 바꾸어 가며 계속 반복하고만 있었다. 어제 밤 영화를 보다가 껏던 채널을 다시 틀자 여배우 L의 연기 인생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다. 그녀에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라느니, 국민배우라느니 하는 거창한 수식어를 붙여, 생전 인터뷰들을 모아 다시 보여주었다. 그리고 중간 중간마다 애달픈 음악과 함께 여배우 L의 사진들이 흑백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이런 식의 특집 프로그램은 다른 채널에서도 여러 번 방송했던 터라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사실 인혜가 느끼는 불쾌함은 일종의 부러움과 질투같은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었다. 비록 그 여배우가 자살을 택할 만큼 힘들고 아팠을 지언정, 많은 이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화려하게 살다간 그녀의 삶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자살을 하더라도 자살을 택한 이유가 궁극하지 않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진 것도 많았을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필시 유약해서 일거라고 인혜는 생각했다. 그리여기니 심지어 그녀가 패심하게까지 느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미련을 버리고 결국 죽음을 선택한 그녀의 모진 결심이 부럽기도 한 것이 인혜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만일 자신이 그 여배우처럼 삶에 대한 절망감이 가득한 유언장을 남기고 화장실에서 목을 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딱하게 여겨며 자신의 자살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리라. 인혜는 차라리 이제 죽어서 편해질지도 모른다고 대화를 주고받을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장례식장 풍경이 쉽게 진행자가 되었다.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던,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지냈던 쫘츠의 죽음은 이 여배우의 죽음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혜는 텔레비전을 끄고 대신 라디오를 틀었다. 여배우 L의 죽음은 인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인건만 그와 관련된 방송을 보고 있자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이 청청 서로 엉켜있는 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그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본능처럼 엄습했다. 인혜는 라디오를 들으며 먹고 난 아침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아침 9시 무렵에는 어느 방송이건 대개 듣기 편한 클래식이나 지나간 팝송이 선곡되기 때문에 조용하고 차분한 오전시간을 보내는 데 딱 적당했다. 오전 시간대 청취자들이 주로 주부들이어서 그런지 소개되는 사연들은 소소한 일상에 대한 것들이 많았다. 어린 아이들과 보낸 시간들, 전날 밤 남편과 있었던 일, 지나간 첫 사랑의 추억, 학교 동창을 만났던 일 같은 이야기들을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가진 진행자가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듯이 정겹게 읽어주었다. 텔레비전에서 시끄러운 사건, 사고들이 연일 방송되는 것과 는 달리, 오전 시간 라디오는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들이 어떻게 지나가는 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는 지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인혜는 때때로 라디오를 들으며 위안을 받곤 했다. 꿈꾸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푸른 젊음, 그 사람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뜨거운 사랑, 가질 수 없다면 부수어 버리겠다는 헛된 욕망,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뇌 같은 격정적인 이야기들은 대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삶에나 존재하는 것이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오늘 무얼 먹을지, 누굴 만날지, 어떤 사람을 보낼 지를 고민하며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바로 라디오의 사연들처럼……。 이처럼 생각하면 인혜는 왠지 모를 안도감에 편안해지곤 했다.

“이야, 인혜야. 햇빛 좀 봐봐라. 이불 열어야 쓰겠어.”
그 때 인혜 모 혜숙이 방에서 나오며 인혜를 불렀다.

“거기, 가스렌지 옆에 그 도마랑 니 방 이불 가지고 나온다.”

요 며칠 계속 비가 내려서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고, 이불도 눅눅하게 느껴졌던 터라 혜숙은 모처럼 화창한 날씨가 반가웠다. 이불을 널 자리를 만들기 위해 혜숙은 마당에 놓인 화분들을 치우고, 빨래줄을 현관 기둥과 대문 살 사이에 각각 묶었다. 현관과 대문을 이은 빨래줄은 마당을 길게 가로질렀고 대충 이불 두 개를 널 수 있을 것 같았다. 뒤따라 나온 인혜가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도마를 내려놓았다.

“내일이면 오토리 꼭 오토리,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빨래줄을 묶고 이불을 너는 동안 혜숙은 계속 노래를 흥얼거렸다. ‘립스틱 질게 바르고’는 혜숙이 자주 부르는 노래였다. 쓸쓸하고 슬픈 곡조가 생각대로 흘러주지 않는 세상살이 같다고 느껴면서도, 노래 말미에 정녕 당신을 잊어주겠다는 가사가 혜숙은 참 마음에 들었다. 상처만 받고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는 그래서

통쾌하다고 생각했다.

“똥대로 되는 게 어딴다구, 다 그냥저냥 이냥저냥 살다보면 다 살아가는 거지. 사는 게 별 거냐. 안 그러냐, 인혜야?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질게 바르고…….”

혜숙은 노래를 부르다 말고 인혜에게 말을 걸었다가 다시 노래를 불렀다. 인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이불 먼지를 털어내는 혜숙의 뒷모습만 가만히 쳐다보았다.

사는 게 별거냐 라는 말은 혜숙이 언제나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었다. 인혜가 저인형성 구루병이란 대사 장애를 앓아 급사등이가 될 거란 의사의 말을 들었던 날, 인혜 아버지가 갑작스레 체장암으로 죽었던 날 그리고 인혜가 동네 아이들에게서 낙타라고 놀림 받는 것을 우연히 본 날 혜숙은 눈 앞 풍경들이 갑자기 하얘지고 소리가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었다. 현기증을 느꼈던 그 순간마다 혜숙은 사는 게 원래 생각처럼 안 되는 거라고, 별 거 아니라고 주문을 걸 듯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었다. 똥는 가슴을 진정하며 별 거 아니라고 반복하며 말하고 있노라면 세상은 제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었다. 인혜 아버지가 죽은 뒤 혼자 야채가게를 꾸려나 가면서 혜숙은 억척스럽게 일해야 했고, 허리를 펴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날에도 이렇게 참고 견뎌왔다. 그렇게 별 거 아니라고,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다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픈 일도, 늘 앞이 캄캄해지는 어려운 일도 그러려니 하고 참고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변해갔다.

그러다보니 인혜의 등이 굽어가는 것을 보는 일도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게 되었다. 장님이나 귀머거리보단 훨씬 낫지, 사지도 정신도 멀쩡하지,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아니니 그냥 하루하루 살다보면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인혜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힘들어할 거란 생각이 들 때면 자신에게 하는 똑같은 말을 인혜에게 해주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야, 사는 거 그거 별 거 아냐……, 하고 말이다.

인혜는 빨래줄이 묶인 현관 기둥 옆 난간에 기대어서 혜숙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 구슬픈 노래이건만 모처럼 맑게 개인 여름날, 덥지 않은 오전이어서 그런지 그저 평온하고 즐거웠다. 한 쪽에서는 죽은 여배우를 위해 우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처럼 한가롭게 햇살을 즐기는 사람이 있구나. 노래를 부르다 말고 사는 게 별 거냐구 혜숙이 묻자 인혜는 이런 생각을 들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 그래, 그런 거겠지. 대답은 안 했지만 인혜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오늘 성당 안 가냐?”
오늘이 성가대 연습이 있는 금요일이란 사실이 생각나서 혜숙은 인혜에게 물었다.

“……어, 이제 안 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듯 했지만 인혜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다. 사실 그것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피아노 연주는 인혜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당의 성가대 반주는 그나마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과 섞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원래 혜숙은 인혜가 재봉 기술을 배워 수선 일을 하거나, 수공업 기술을 배워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내심 바래왔다. 언제까지나 자신이 인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기술이 있어 자기 가게를 차리거나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면 적어도 제 몫을 하며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여겼다. 그런데 혜숙의 바람과는 반대로 인혜는 생계를 거리가 먼 피아노를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려왔다.

인혜에게 피아노를 시킨 것은 병원 상담소 선생의 제안이었다. 인혜가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며 우울해하자 악기를 가르쳐 보자고 했던 것이다. 집 근처 피아노 학원도 있었대, 집에 혼자 애를 두는 것보다는 학원에 있는 편이 낫겠다 싶기도 했고, 음악을 배운다는 것이 인혜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인혜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모처럼 딸아이가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기뻐서 인혜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돈을 모아 중고 피아노까지 사주었었다. 인혜가 제법 그럴싸하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을 무렵에 안타깝게도 인혜 아버지는 죽고 없어 인혜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인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피아노에 몰두했었다. 만일 다른 집, 다른 애들 같았으면 콩쿠르를 나가던거나 대학진학을 고려했겠지만 혜숙은 그런 이야기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았다. 행여 인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기까지 했다. 헛된 기대를 가졌다가 행여 상처를 입을까 염려스러웠고, 사실 썩 쓸모없는 일 같아보이지도 않아 혜숙은 인혜가 피아노에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이 내심 못마땅스러웠다. 어머니의 마음을 눈치 채고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인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인혜는 피아노 말고는 다른 일을 하려들지

않았다. 그 당시는 인혜와 얼굴을 부딪힐 때마다 인성을 높이며 싸우곤 했는데 혜숙은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파를 지경이었다.

다행히 인혜가 친구의 부탁으로 성가대 반주를 두 세 번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성당에 다니게 되었고, 그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알음알음 소개를 받아 한 두 명씩 피아노 교습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혜숙의 잔소리로 줄어들었다. 딸 자식이라고 생각대로 움직이라, 원래 똥대로 되는 것 없다구, 사는 게 흘러가는 듯 지나가면 되는 거라구 그렇게 여겨며 혜숙은 그럭저럭 참고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성당에 안 나간다니…….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냐?, 뭘 잘못이라도 했냐?”

“잘못은 무슨……”

“근데 왜 그러는데? 갑자기.”

“나도 몰라.”

“니가 왜 모르는데!”

혜숙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혜는 뒤를 돌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가 말하다 말고…… 왜 들어가는데!”

혜숙이 황급히 뒤쫓아 들어왔다. 인혜는 냉정고 문을 열어 혜숙이 먹을 아침상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다. 인혜의 표정을 보자 혜숙은 아까와 같은 기세로 물을 자신이 사라져버렸다. 털썩 소릴 내며 식탁 의자에 앉아 가만히 인혜 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인혜는 껏웃 절임, 콩자반, 미역줄기 무침을 꺼내 하나씩 접시에 옮겨 담았다. 딸그락 딸그락 접시가 식탁 위에 부딪히는 소리만 날 뿐 모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한 가운데 가스렌지 위에서 김치찌개가 끓는 소리만이 들렸다. 인혜는 가스렌지 쪽으로 가서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한 두 번 저어준 뒤 국자로 그릇에 덜어냈다. 하지만 찌개를 담은 그릇을 식탁으로 가져오지 않고 내려놓더니 뒤돌아 선 채로 잠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왜 이번에 신부님 새로 오시면서 성가대도 개편하고 했잖아. 이제까지 우리끼리 연습했었는데 앞으로는 지휘자 선생님도 모시구, 성당 성가대 반주도 다른 사람한테 맡긴대. 피아노 전공하는 음대생이래.”

“그래서…, 나……?, 4년 넘게 해왔는데 이제 나오지 말라는거?”

“아냐……, 그런 건 아니구……, 나더러는 이번 주부터 S대학병원에서 하는 환자들을 위한 미사 반주하래.”

“예구, 그럼 되겠네, 난 또…….”

그 말을 듣자 혜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 뭐라고……, 아예 성당에 가질 않겠다는 건 줄 알았지 뭐냐, 그게 아님 되었다. 혜숙은 그제야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먹기 시작했다.

“엄마.”

인혜가 뒤돌아 선 채로 혜숙을 불렀다.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서 여배우 L의 장례식 장면을 보면서 상심했던 자신의 장례식 모습을 떠올렸다. 꼭꼭 눌렀던 영긴 타래의 감정들이 순간 올라오는 듯 했다.

“왜?”

혜숙은 미역줄기 간이 싱겁다고 생각하며 대답했다.

“있잖아……, 나도 잘 칠 수 있는데……, 내 등 때문인가?”

인혜의 물음에 혜숙은 고개를 돌려 인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스렌지 위에 놓인 김치찌개 냄비 높이가 인혜 가슴 높이 만한지라 인혜는 흡사 초등학교생처럼 보였다. 인혜가 고개를 숙이자 굵은 등이 더 높게 솟아올랐다. 인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 지 알 것 같았지만 혜숙은 다가가지 않았다. 그리고 인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주 잠시동안 서로 가만히 멈춰있었다. 하지만 이내 곧 혜숙이 수저로 밥을 떠먹으며 말했다.

“신경쓰지 마라, 사람마다 다 속상한 게 있구……,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인혜는 혜숙에게 덜어낸 찌개를 가져다주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가만히 뒤돌아서 있었다. 혜숙 역시 더 이상 말을 걸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아침식사를 했다. 고개를 숙인 인혜의 굵은 등은 한동안 계속 높게 솟아있었다.

2. 분명 S대학병원 입구 버스정류장에 내렸건만 병원에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했다. 오후가 되자 날씨는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지경에 이른 것 같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턱턱 막혀오는 뜨거운 공기가 너무나도 답답했다.

“이제는 몇 도였더라?” 인혜는 어제 저녁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떠올리며 생각해보았지만 도무지 기억나질 않았다. 사실 아무래도 어떤가, 연일 최고 낮 기온은 갱신하는 중인데, 분명 오늘 오후 기온도 내일 기온에 밀려날 것이다. 인혜는 더더욱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팔위를 스쳐 지나가는 아스팔트 열기와 한 여름 햇살은 따갑기 그지없었고, 이제부터 매 주 병원 교회당을 가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더욱 참기

소설 당선 소감

인간과 삶의 향기 묻어나는 소설 쓰겠다

소설을 쓴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가를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지전능한 무언가가 되어 이야기를 빚어내는 일은 재미있는 작업일 것이라고 단순히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쓰는 일은 정말 제 생각과는 다른 일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처럼 마음대로 그것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 끊임없이 물어야 했고 많이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글이 당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놀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좀 더 인간과 그 삶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저는 아직 깨달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동운 교수님의 소설 창작론 수업 덕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소설을 쓰기 위해 그 어떤 때보다 삶에 대해 열심히 생각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지도해주셨습니다. 그 분께 무척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똥고 시어서 더 익어야 하는 과일같은, 제 글은 아직 많이 서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인간과 삶을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인젠가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김소학(국어국문 4)

힘들었다.
인혜가 앞으로 미사 반주를 맡게 된 교회는 S대학 병원입구 버스 정류장에 내린 뒤에도 응급실 옆으로 난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다. 원래 이 근방에서 제일 먼저 건축된 교회당이었는데 S대학병원이 생기고 확장되면서 자연스레 신자들이 새 교회로 옮겨가 지금은 건물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때금씩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이 교회 건물을 찾으면서 수녀 한 분이 상주하게 되었고 매 년 번갈아가며 지역구 내 신부들이 미사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나마 나무 그늘이 있어 올라가는 동안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교회 건물이 보였다. 띄엄띄엄 나무들이 뒤에서 자라고 있었고, 빨간 벽돌에 하얀 아치형 창문, 그다지 높지 않은 첨탑을 가진 교회 건물은 아담하고 소박한 느낌을 자아냈다. 교리 공간이나 신자 쉼터 같은 공간 없이 달랑 예배당만이 남아있는 그런 건물이었다. 아마도 교회살림이 더 커지기 전에 이전한 듯 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교회는 오래된 건물에서 배어 나오는 조용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교회 안은 아늑하다고 느낄 만큼 작고 아담했다. 양 옆으로 의자들이 다섯 줄씩 놓여 있었고, 양 쪽 벽에는 예수가 죽은 십자가의 고난이 그 순서대로 묘사된 판화가 10개 걸려 있었다. 나무에 새긴 판화로서 그런 지 질감이 거친데다, 까만 잉크와 하얀 종이의 대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일그러진 예수의 표정과 피땀이 두드러졌다.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이 성화야말로 병원 한 쪽에 조용히 자리 잡아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곳과 잘 어울린다고 인혜는 생각했다.

제단 옆으로 성모마리아 상이 놓여있었고, 제단 바로 위에는 십자가상이 걸려있었다. 성모마리아 상의 발치에는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백합 바구니가 있었고, 가까이 가면 아직도 백합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인혜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가만히 제단 위 십자가상의 예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문득 자신이 다니는 본당의 쟈마 수녀가 예전에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요안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요. 물론 요안나의 고통도 잘 알고 계시죠. 살아가는 동안 고통받아 온 모든 것을 분명 보상에 주실 거예요. 잘 견뎌왔다고 상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통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말이요.’

보상받을 수 있는 고통이라던가, 신도 역시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저 힘든 순간이 어서 끝이 나기를, 다시는 눈물 흘리며 파아하지 않기를 애타게 바라지, 삶이 끝난 다음 하늘에서 영원토록 배울 수 있다는 신의 보살핌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신 역시 인간과 함께 아파하고 있다면, 고통스런 사람들 속에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인혜는 궁금했다.

한 때 인혜는 어릴 적 읽었던 ‘곰사슴이 작은 소녀’란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여겼었다. 곰을 능가해 되어서 슬픔만을 안고 살았던 어린 소녀는 죽은 후 영혼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추한 자신의 모습에 흐느껴 운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동안 별과 달을 만나고, 은하수를 건너는 뱃사공을 만나는데 다들 소녀의 굵은 등을 보고 놀려댄다. 하지만 천국의 입구에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천사는 소녀를 공손히 맞이한다. 그리고 소녀에게 이야기 해준다. 사실 소녀의 등에는 천사의 날개가 들어있었던 것이라고, 이제는 자신과 함께 날아올라가자고 말이다. 자신의 등에 빛나는 날개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된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짓는다. 인혜는 이 동화 속 주인공처럼 자신의 등에는 날개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분명 언젠가 날아올라 수 있다고 여겼었다. 스스로를 망당하게 여겼던 남들 역시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꿈을 꿀 수 있고,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 혜숙이 임버릇처럼 하는 말하듯 세상은 생각처럼 움직여 주질 않았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작은 키를 가진 인혜는 종종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 일수였다. 사람들이 많은

혼잡한 시간대 버스나 지하철을 탈 일이 있을 때는 ‘하필이면’ 이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짜증스럽게 자신을 내려보는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시선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을 때 불안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의 반응에도 이제에는 이미 익숙해졌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자신은 그에게 여자로서 다가가지조차 못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한 슬픈 기억도 있었다. 피아노를 아무리 좋아해도 자신은 오르지도 못 할 나무 아래에서 서성이는 일밖에 못한다는 것을 잘 알 고 있다.

사는 게 별 거 아니라는 말은 혜숙의 임버릇이라 담담하게 받아들이 때 되었던만 사실 인혜는 그것이 쉽지 않았다. 혜숙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이고, 라디오에서 소개되는 소소한 사연들처럼 그저 큰 바람없이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늘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그러면 대개 안도감이 들면서 편안해지곤 했지만 때때로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기도 했다.

오늘 아침이 그랬다. 자신의 죽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질 초라하고 조용한 것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아름다운 여배우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 도똥하게 보였다. 만일 자신의 등에 정말 천사의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이라면 천국의 하늘이 아니라 지상의 하늘에서 날아오르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금 여기, 이곳 이 자리에서 당당하고 눈부시게 살아가고 싶었다.

인혜는 며칠 전 교회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성가대 새 반주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날선하고 긴 손가락을 가진, 땀시에는 차림새를 한 단정한 학생이었다. 방실 방실 연신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는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는 울어본 적이 있을까 싶었다. 분명 이 아이는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인 적도 있었을 테고,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거라고 여겨며 살아왔으리라. 인혜는 자신이 만일 날개가 있었다더라면 지금 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혜숙의 말과 같은 것이다.
‘신경 쓰지 마라, 사람마다 다 속상한 게 있구……,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인혜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해주지 않는 오늘 혜숙이 원망스러웠다. 이제껏 혜숙은 인혜에게 꿈꾸고 바랄 수 있는 일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부터 이야기 해주었었다. 물론 혜숙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굵은 등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칠 일이 더 많은 세상에 대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맞다고 여겨왔었다. 그래서 혜숙이 바느질 수선 기술을 배우라고 했을 때도, 수공예가죽 처리법을 만드는 공장에 일자리를 얻어왔을 때도 비록 싸우기는 했지만 서운하지는 않았다. 인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굵은 등을 가진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자세를 말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자신이 여배우 L이나 새 반주자 학생과 다를 것이 없다고 여기고 싶었다. 그녀의 꿈은 자체를 떠올리며 자신에게는 날개가 숨어있는 등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혜숙의 대답은 어느 때와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인혜가 받아들여야 할 아픈 진실이었다. 누구나 속상한 것을 하나씩 안고 가는 세상……, 털어낼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고통의 숙명. 인혜는 다시 한 번 십자가상의 예수 얼굴을 쳐다보았다. 고통스런 희생이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슬프구나. 인혜는 등이 묵직하게 느껴지며 눈물이 나올 듯 고개를 시러왔다.

“요안나 자매님?”
그 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인혜를 불렀다. 이 교회에 상주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돌보는 베로니카 수녀였다.

“어머, 이미 와 계시네요, 점심 먹고 오느라고요……, 제가 좀 늦었죠? 식사는 하셨어요?”

“아……, 네, 대충.”

“다우시죠? 에어컨을 안 틀어놔서요, 사무실로 가죠, 냉커피 좋죠?”

“네.”
베로니카 수녀는 언뜻 보기에도 서글서글하고 편

안한 인상이었다. 웃을 때 마다 두드러지는 양 쪽 광대가 그녀의 웃음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사무실에 들어간 뒤 베로니카 수녀는 작은 냉장고 냉동칸에서 얼음을 꺼내고 전기 포트에 물을 담아 버튼을 눌렀다.

“예구, 어찌나…, 얼음이 별로 없네. 계속 냉커피를 마셨더니…”

“뜨거운 커피도 괜찮아요.”

“무슨, 이 날씨에…. 아쉬운 대로 나눠서 먹어요, 우리.”

웃으며 베로니카 수녀는 말했다. 그리고는 유리컵에 커피믹스를 넣고, 전기 포트의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다. 커피 믹스가 다 녹자 두 덩어리씩 얼음을 넣고 몇 번 어준 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차가운 물을 부었다. 인혜는 솜씨 좋게 냉커피를 만드는 베로니카 수녀를 보며 맛있는 요리를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다.

“자, 여가…”

“고맙습니다.”

인혜는 냉커피를 건네는 베로니카 수녀의 통통한 손이 참 편안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자신이 다니게 될 이곳의 수녀가 이 분위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이 병원의 다른 환자들 역시 이렇게 밝고 낙천한 인상의 베로니카 수녀를 무척 좋아하고 있으리라.

“여기 미사는 일요일 오전에만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서 신부님이 계속 계시질 않거든. 요안나 자매님은 일요일 오전에 와서 반주 해주실 돼요.”

그러고보니 인혜는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보지 못한 적이 생각났다.

“근데…, 피아노는…”

“호호호, 그르게요. 원래 여기 피아노가 없어요, 작잖아… 여기. 쓰지도 않는 풍금이 있었는데 그거 소리 내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풍금이요?”

“응, 풍금. 근데 내가 전에 있었던 성당 신부님한테 우겨서 학생부 애들이 연습 때 쓰는 전자 키보드 하나 얻어왔어요. 나 잡겠죠? 호호호”

베로니카 수녀는 신난 아이처럼 좋아서 웃었다. 인혜는 전자 키보드라는 소리에 조금 아쉬웠으나 풍금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풍금의 페달을 밟으며 건반을 연주하는 일은 허리가 낮은 인혜에게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병원 교회라 정기 신자가 있을 리도 없는데다 일요일 미사 때도 사람이 적어서 되게 썰렁하거든요. 노래 부르는 소리도 거의 없고…,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거 같아요.”

“네에.”

“안 그래도 축 처지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데, 그럼 넌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주자 좀 보내달라구 여기저기 성당에 부탁했죠. 음악소리가 있을 즈나을 거 같아서 말예요.”

“네에.”

이야기를 들으며 인혜는 아무도 원치 않는 자리에 자신이 오게 된 건 아닌지 살짝 불안해졌다.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는 곳에서 듣는 사람이 없는 연주를 하게 될까 염려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안나 자매님은 일요일 오전 미사 시간에 맞춰서 오면 돼요. 여긴 병원 시간에 맞춰서 11시에 시작하구 30분 정도로 짧게 해요. 신부님 입장이랑 퇴장곡 하나씩, 성체익식 때 노래 이렇게 3곡이면 될 것 같구, 참. 봉헌의식은 없어요. 무슨 노랏 하면 좋을 지는 요안나 자매님이 일요일에 좀 일찍 나와서 나랑 의논하면 될 거 같네요. 요안나 자매님이 좋아하는 거 생각했다 해도 좋구.”

인혜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손에 뽕 냉커피를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얼음은 이미 다 녹아 얼어져 있었고 유리컵 밖에 맺힌 물방울들은 마치 따져줘 인혜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다.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차들이 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내 곧 베로니카 수녀가 말을 다시 시작했다.

“처음엔 좀 어색할거예요. 특히 우리 둘만 노랏 부르면 말이지요.”

“네? 노래요?”

인혜는 갑작 놀라 베로니카 수녀를 쳐다보았다.

“네, 노래.”

“노래라뇨…, 저…저는 반주만 하는 거 아니가요?”

당황한 인혜는 말을 더듬었다. 노래를 못 부르는 편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자신있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베로니카 수녀와 단 둘이 사람도 별로 없는 썰렁한 미사에서 노래를 부른다니…, 그 모습을 상상하자니 왠지 부끄러웠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웅얼거리기만 한다구. 난 말예요, 음악이 있구 누가 먼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다 같이 부르게 될 거 같거든요. 아무나 먼저 크게 부르지 못하니까 다들 시작을 못하는 거라고요. 분명.”

“하지만…, 전…”

“안 그래도 병원은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까지 침울한 건 안 좋은 거 같아. 난 이곳이 예수님한테 절실히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들이 노래 부르고 기분 좋은 내일을 바래면서 병실로 돌아가는 곳이었음 좋겠어. 요안나 자매님이 좀 도와줘요.”

베로니카 수녀는 서글서글한 말투에 푸근한 웃음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았다. 베로니카 수녀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은 인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네에…….”

결국 인혜는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잘 됐다! 잘 해봐요, 우리.”

베로니카 수녀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다. 인혜가 망설이다가 어렵게 대답한 것을 눈치 챘지만, 자신까지 머뭇거리면 힘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될 것 같아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시간나면 평일 아무 때나 와도 돼요. 그냥 좋아하는 음악 연주해줘도 되구, 나랑 말동무해주면 더 좋구 …. 게다가 음악소리, 사람소리가 들리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겠어요?”

새로운 일을 눈 앞에 두고 기대에 부푼 베로니카 수녀의 표정을 보며 인혜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이미 다 마시고 비워진 냉커피 유리잔을 연신 입에 갖다 대었다.

3. “8016호…, 8016호…….”

인혜는 번호를 되내이며 간호사실에서 수간호사가 가르쳐 준 병실을 찾아 복도를 걸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려고 할 때 베로니카 수녀가 인혜를 다시 한 번 불러 부탁을 한 것이었다.

‘이 성가집 말예요, 이 병원에 있는 은숙씨가 지난 주에 두고 간 거거든요. 자리에 일어나면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미처 못 챙겼나봐. 오늘 청소하다 찾았네. 이번 주 미사 때 줘도 되지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요안나 자매님이 가시는 길에 좀 전해주겠어요?’

인혜는 앞으로도 베로니카 수녀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확실히 그녀의 웃는 얼굴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았다.

8층은 정형외과 병동이라 벽을 따라 걷기 연습을 위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지지대를 붙잡아 잠시라도 오랫동안 서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환자도 보였다. 인혜는 마음 한편에서 웬지 모를 동병상련이 들었다. 두 발을 지면에 대고 바로 설 수 있는 힘.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 팔을 뻗어 원하는 것을 움켜 쥌 수 있는 손…, 대부분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을 잃어버린 8층 병동의 환자들이



마지 인혜 자신과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8016호는 8층 복도 맨 끝에 두 번째에 있는 6인 병실이었다. 침대에는 제각각 부서진 몸을 지탱해주는 기구들과 지지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평평 잡힌 일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터벅터벅 걸어 나가는 간병인도 보였다. 그 간병인은 맥이 빠진 것처럼 기운 없어 보였다. 확실히 병원이란 곳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곳이면서도 사람 기운을 소진시키는 무언가가 있다고 인혜는 생각했다. 환자도 간병하는 사람도 주변에 계속 아픈 사람들만 보다보면 암울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서히 지쳐간다. 게다가 그렇게 입원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프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서 결국 나중에는 다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린다. 인혜 역시 긴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던 터라 무겁게 가라앉은 8016호 병실의 공기가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8016호는 6인 병실인데 침대 두 개가 비어있는 걸 보아 네 명이 입원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병실에는 환자 두 명과 간병인 한 명만이 있었고, 간병인은 빈 침대에 누워 곤히 자고 있었다. 다른 환자 한 명도 보아하니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인혜는 침대에 붙어있는 명찰에서 정은숙이라는 이름을 확인하면 그냥 그곳에 살며시 성가집을 두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은숙의 침대는 창 옆에 있는 침대였다. 어느 병원이냐 6인 병실에서 창 옆에 있는 침대 자리는 제일 좋은 자리이다. 그래서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그 병실에서 제일 오랫동안 입원한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있다. 인혜는 정은숙이라는 환자가 제일 오래 입원한 환자임을 알 수 있었다.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한 명은 마침 은숙이었고, 그녀는 누워서 깨어있는 채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어가…, 베로니카 수녀님이 부탁해서 왔네요.”

인혜는 혹시라도 옆 환자를 깨울까 싶어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아…, 네.”

“지난 주 미사 때 성가집을 떨어뜨리고 가져서 전해주러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은숙은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였다. 그리고 나직하고 조용히 대답을 했다.

“그럼…, 전 이만.”

인혜는 성가집을 누워있는 은숙의 발 옆에 두고 살

며시 뒤돌아섰다. 그 때였다.

“저… 실례지만…”

“네?”

병실 밖으로 나가려던 인혜는 흠칫 놀랐다.

“저…, 저 좀만…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은숙은 인혜를 불렀다.

“네에?”

은숙은 누운 상태에서 침대 난간을 꼬옥 쥐고 두 팔꿈치에 힘을 주어 힘들게 어깨를 일으킨 채 다시 말했다.

“제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대변을 … 지린 거 같아요. 냄새가 나는데… 근데… 어머니가 외출을 하셔서 돌아오시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은숙은 머뭇머뭇 매우 조심히 말을 건넸다. 하지만 인혜는 매우 당황했다. 지금 이 여자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부탁을 하는 것이란 말인가. 더군다나 대변을 치워달라니.

“저가…, 간호사를 불러 드릴게요.”

인혜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 문 쪽으로 향하며 대답했다.

“그게…저…”

은숙은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아까부터 두 번이나 호소했는데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냄새가 자꾸 나서 계속 기다릴 수도 없구.”

“그리고 보니 여기는 6인실이지, 이래도 마냥 기다리다간 나가있던 다른 환자들이 병실 안 냄새 때문에 곤란할 수 있겠다 싶었다.

‘내가 간병하는 것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여자구…, 그제 성가집을 돌려주러 온 것일 뿐인데 이거 참…, 대변을 치워준다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아끼 기저귀 갈아주듯이 하면 되는 건가?’

순간 인혜는 갖가지 생각들을 떠올리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하고 작게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은숙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고개를 돌렸다.

후유. 모든 일을 마치고 나자 인혜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숨을 내쉬었다. 일을 끝내자마자 자리를 뜨겠다던 처음 생각과는 달리 인혜는 탈색 은숙의 간병인 간이침대에 앉고 말았다. 화장실과 간호사실 그리고 병실을 오가며 부산하게 움직인데다, 인혜의 키에 비해 높은 침대에 누운 은숙의 다리를 찌가는 일은 생각보다 힘이 드는 일이었다. 사람의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저 목석처럼 굳어있을 때 얼마나 무겁고 버거운 것인가를 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잠시 쉬어야겠다 싶어 인혜는 간이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S대학병원은 창경궁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병실 밖으로 창경궁을 오가는 사람들이 잘 보였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창경궁 내 나무들은 눈을 씻어줄 듯이 시원한 초록빛으로 짙어가고 있었다. 차들이 다니며 내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왔고, 병원 안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 급식 배달 수레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 수간호사를 찾는 옆 병실 간병인의 외침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혜는 창경궁을 내려다보며 잠시 한가로운 기분에 젖었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 나무 잎사귀들이 작게 흔들리는 풍경을 보며 사람 사는 것과 달리 어느 때나 아름다운 자연은 너무 무심해서 잔인하다고까지 느껴졌다. 하긴 그리고 보니 나무나 산은 마음이 없었고,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니까 세상이 흔들려 보이는 거라는 말을 어디선가 읽은 것 같기도 했다.

“음료수 드실래요?”

은숙이 말을 걸었다. 인혜는 고개를 돌려 은숙을 보았다. 은숙은 누워서 오른쪽 팔을 들어 침대 밑 음료수 선물박스를 가리켰다. 침대 밑에는 오렌지, 포도, 알로에, 망고, 대실 등등 없는 음료수가 없었다. 마치 시중에서 파는 모든 음료수 선물세트를 다 가져다 놓은 것 같았다. 인혜는 그럼 하나만. 하고 대답하며 알로에 음료를수를 집어 들었다.

“일으켜 드릴까요? 음료수 같이 드실래요?”

캔 뚜껑을 열고 마시려다 문득 생각나서 은숙에게 물어보았다. 아까 은숙이 힘겹게 어깨를 일으켜 자신을 불렀던 게 떠올랐다. 아까 누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것이리라. 그래서 자신이 아까 찾아왔을 때처럼 자다가 깨나도 혼자 일어나지 못해 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을까.

“자꾸 죄송해요, 그럼 저 좀만 일으켜 주실래요?”

은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그녀의 눈만 바라보아도 알 수 있었다. 인혜는 순간 아무 말 없이 통명스럽게 은숙을 시중 든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닥쳐 어찌지 못해 막막한 사람에게 쓸데없는 화를 냈구나 싶어 미안해졌다.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는 두 다리에 전혀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체를 움직여 주는 일은 환자 몸무게의 반 이상을 끌어올려야만 한다. 굵은 등 때문에 키가 작은 인혜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잠시 생각한 뒤 인혜는 간이침대를 밟고 올라가 은숙의 몸 위로 섰다. 그리고 양 쪽 겨드랑이를 두 팔로 감싸 앉아 은숙의 상체를 당겼다. 인혜가 두 세 번 힘을 주어 당기자 후에는 은숙이 두 팔을 움직여 침대에 기대앉을 수 있을 만큼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침대에서 내려온 인혜는 간이침대에 놓여있던 쿠션을 은숙의 등 뒤에 대주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꺼내 건네주었다.

“저도 아까 통명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인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니에요, 힘 많이 드셨죠? 정말 고마워요.”

그제야 굳었던 얼굴이 풀리면서 은숙이 대답했다. 인혜는 아까 뚜껑을 열다가 만 알로에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다. 은숙 역시 오렌지 주스 병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단숨에 들이켰는데 아마도 계속 목이 말라있었던 것 같았다. 만일 자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역한 냄새를 참으며 어머니나 간호사를 하임없이 기다리고 있었겠나. 물론이라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인혜는 그냥 가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어! 저 그 여자 알아요, 클라라 하스킬이죠?”

은숙은 인혜의 악보침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것은 인혜가 성가 악보와 좋아하는 곡들의 악보를 넣어 두는 파일철이었다. 혹시라도 오빠에 교회에서 연주할 일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파일철 표지는 인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클라라 하스킬의 사진을 코팅해서 붙여두었는데 은숙이 알아본 것이었다. 하스킬을 알아본 은숙이 반가워 인혜는 말을 불렀다.

“클라라 하스킬 좋아하네요”

인혜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은숙은 살짝 놀랐다. “좋아한다기보담…, 사실 연주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잡지책에서 클라라 하스킬의 모습과 생애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워낙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네.”

하스킬의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던 말에 인혜가 살짝 실망한 눈치인 것 같아 은숙은 왠지 미안했다. 그래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텔레비전에서 심야시간에 하는 클래식 프로그램 있잖아요. 얼마 전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하는 글렌 굴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연주도 훌륭했고 음악도 참 좋더라구요. 그러다가 클라라 하스킬에 대해 읽었던 게 생각났죠. 모차르트의 모차르트만 평가를 들었을 만큼 모차르트 해석이 탁월했다고 한 거 같아서 말예요.”

“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이 유명해요.”

인혜의 대답에 은숙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글렌 굴드의 연주를 들으면서요, 클래식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하스킬은 과연 어떤 느낌으로 연주했

을지 상상해보았어요. 그 사람에게 피아노는 인생 전부였겠죠? 분명 사람 마음을 움직였을 거예요. 말 못 할 고통 속에서도 아름답게 울려 퍼졌을 테니까요. 텔 레비전을 본 뒤 예전에 읽었던 하스킬의 생애가 생각나서 그녀의 연주를 듣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뭐랄까…, 내게 위로를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인혜는 말없이 은숙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클라라 하스킬은 20세기 초 루마니아의 천재 피아니스트였다. 탁월한 모차르트 해석으로 매우 유명했다. 하지만 더욱 유명한 것은 그녀의 비운한 삶이었다. 그녀는 악보를 읽을 수도 없었던 6살 때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한 번만 듣고 연주하는 가하면 그 자리에 조를 바꾸어서 다시 연주할 정도로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열한 살에 프랑스 파리 콘서트바토리에 입학해 열다섯 살에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아름다운 미모의 천재 여류 피아니스트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름답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남겨진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빼어나고 우아한 자태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실로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겨우 열아홉 살 때 세포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려 그녀가 가진 대부분의 것을 잃어야만 했던 사실이다. 뼈와 근육, 세포와 세포가 붙어버리는 병 때문에 하스킬은 4년 동안 온 몸에 깁스를 해야만 했다.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오그라드는 몸 때문에 평생 등과 허리에 보조대를 해야했고 스스로 머리도 빚지 못하는 절주가 되고 말았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모두 잃어버린 채 힘겹게 다시 피아노 앞에 섰지만 2차 대전이 발발한 탓에 유대인인 그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숨어살아야 했다. 그 동안 부모를 잃고 뇌졸중과 합병증으로 생사를 헤맸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은신처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다. 그런 그녀가 세상에 나와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된 것은 그녀 나이 52살 때였다. 그 때부터 사고로 죽기 전까지 13년 동안 하스킬은 피아노 연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순수하고 아득하고 경건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녀의 곡해석은 그녀의 별명을 피아노의 성녀라 이름 붙여 주었다.

분명 은숙은 이러한 하스킬의 생애를 기억하고서 그녀의 연주를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리라. 처절한 삶의 고통 그 밑바닥까지 겪어본 사람이 오히려 절망보다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삶의 역설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고통스러우나 아름답고, 힘겨우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말예요, 하스킬의 연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훌륭했지만 연주하는 내내 그녀는 매우 심한 고통을 참아야 했대요. 비틀린 몸으로 장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고, 건반에 힘을 실어 연주하는 것 역시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심지어 공연이 끝나 뒤 심장장애큐 일으किन 했죠.”

인혜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난 말이지, 그녀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궁금해요. 하스킬은 어떤 마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했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지 언정, 고통스런 그 연주가 과연 그녀를 구원해주는 위안이였을까? 그리고 생각하자. 만일 내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거나 삶의 가치를 증거하는 일이 될지라도 나는 아프고 싶지 않다고 말예요. 솔직히…, 고통은 고통일 뿐 거기서 희망을 보거나 어떤 의미를 찾는 건 그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오만한 착각이 아닐까 싶어요.”

인혜는 은숙에게 말을 하면서 점점 흥분하게 되었다. 누구나 다 속상한 거 한 가지씩은 가지고 산다는 해속의 말이 떠올랐고, 어린 시절 굳게 믿었던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 없는 굵은 등에 천사의 날개를 갖고 있던 소녀 이야기도 생각났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밀려오는 슬픔이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의 운명임을,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게 많지 않음을 인정해야 했다. 자신을 가리켜 있다고 하는구의 권원은 지금 이 순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갈구해도 결코 자신은 곧은 등으로 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은숙에게 하스킬에 대해 말해준다는 것이 어찌나 결국 인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버려 인혜는 처음 만난 은숙 앞에서 마음을 내비치고 말았다. 아무래도 무슨 아침부터 내내 기분이 안 좋았던 탓이 컸다.

은숙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인혜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잠시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잊은 채 남은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다 마신 은숙이 말을 이어갔다.

“난 말예요, 7살 난 딸이 있어요. 올케 유치원에 들이갔죠. 다락 졸업하구 약사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애아빠를 만나 일찍 결혼했거든요. 병원에 처음 입원한 것은 4년 전이에요. 제가 얼마나 황당하게 병원에 실려 온 줄 아세요? 있잖아요, 샤워를 하던 중이었는데 휘청 하더니 그냥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릴 고래고래 질러왔고 거실에 있던 남편이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갔죠.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다 혹시 잘못될까봐 웃도 입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병원에 실려왔단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집에 있던 일요일이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꼭꼭없이 누군가 나타날 때까지 욕실 바닥에 누워있어야 했을 거예요.”

인혜는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은숙이 조금은 놀라웠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된 그녀 역시 자신과 비슷한 심경을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은숙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다.

“알고 보니 전 척추 쪽에 종양이 생겼는데 그게 점점 자라다가 신경을 누르게 된 거였어요. 완전 시한폭

탄을 갖고 있던 셈이죠. 그게 빵 터져버린 거예요. 4년 전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인혜는 은숙을 쳐다보았다. 염려와 달리 은숙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대로 두면 전신마비가 된다기에 수술을 감행했어요. 수술이 잘못되면 몸 일부가 마비된다는 위험이 있었지만요. 신경을 지나는 부분에 종양이 있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동안 다른 부분에 전이가 돼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수술 땀에 다리가 마비되었고, 예상보다 길게 집과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 동안 팔아이는 지방에 있는 시댁에 맡기구, 남편은 서울 집에서 혼자 지냈구, 전 친정에 가 있었어요. 그렇게 지낸 지 이제 4년인데 이런 상태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클라라 하스킬의 음악을 듣고 싶은 건요,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오늘 내 다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내일은 감각이 돌아와 언젠가 내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날을 상상하고 싶어요.

저는 하스킬이 긴 시간동안 고독하고 슬프고 무척 괴로웠을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내내 매우 아팠겠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건 그것이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소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에 대해 이것저것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테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훌륭한 연주보다 모든 시련을 견뎌 온 사람의 소리가 더 아름답다는 사실이죠.”

인혜는 은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자신 안에서 닫혀있던 무언가가 틈을 벌이고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은숙이야말로 오늘 아침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고 필요했던 말을 해 줄 수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5. 퇴근길 저녁이라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고 인혜가 타고 있는 버스 역시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움직였다. 비록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데다 집까지 길게 돌아가는 노선이지만 광화문을 거쳐 남산을 오르고 다시 한남대교를 지나 한강을 건너는 402번 버스를 인혜는 좋아했다. 버스에 앉아 남산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 도심 풍경이나 다리를 지나며 햇살에 부서지는 강 물결을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오늘같이 해가 지는 퇴근길 저녁, 때마침 운이 좋아 남산을 올라가는 길에서 차들이 막히기 시작해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날은 인혜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것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버스가 남산 언덕을 오르자 오른 쪽 창 밖으로 서울역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빌딩과 고가도로 그리고 수많은 차들 뒤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도시의 화려한 모습들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검은 그림자와 같은 평면으로 변하였고 그 뒤로 타오르는 듯 한 붉은 석양빛이 보였다. 천천히 빛이 사라지며 사물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인혜는 모든 소리가 사라진 세상을 잠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곧 어둠이 찾아와 가로등과 빌딩의 창들에서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오늘 인혜는 은숙에게 자신이 이제까지 품어왔던 모든 불만과 의문에 대해 딱 들어맞는 답을 구하려는 듯 이야기 해나갔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인혜는 아무 것도 느낄 수 없는 목석같은 다리를 갖고도 초연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던은숙에게서 질투를 느꼈다. 아니 그 반대로 희망을 본 것일 수도 있었다. 인혜는 그녀라면 자신이 가진 슬픔에 대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혜가 보기에 은숙은 투병생활을 하며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고, 남편과 아이와 함께 할 삶의

기쁨을 잃었으며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발가락 끝을 찌르며 고통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서서히 빛과 소리가 어둠 속에 잠겨가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것일까? 아니면 초연한 것일까?

어느 덧 버스는 제 속도를 내려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 한남대교를 지나 한강을 건너고 있었다. 밤길을 달리는 차에서 보는 창 밖 풍경은 어두운 물결 위로 비치는 가로등과 주변 인가의 불빛들로 아름다웠다. 또 한 인혜는 그 풍경 위로 유리창에 반사되어 보이는? 투명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인혜는 어둠 속에서 아양충처럼 빛나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낮 은숙과의 마지막 대화를 다시 떠올렸다.

“왜 그랬을까?” 인혜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인혜는 은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 스스로가 먼저 굶은 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까지 받아왔던 동정여린 시선들, 그 속에서 견뎌야만 했던 모멸감, 매일 거울을 보며 느끼는 절망을 은숙에게 토로하였다. 그러자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자 가만히 듣고 있던 은숙은 조용히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그럼 왜 스스로 먼저 죽지 않았나요?”
왜 죽지 않았냐는 질문은 인혜 스스로도 던져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의 굶은 등을 보면서 동정이 아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은숙이 처음이었다. 인혜는 이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왜?”
그렇다. 이제껏 지치고 힘들고 가시를 삼키는 것처럼 아픈 순간마다 여배우 L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사실은 여전히 ‘살고 싶다’는 것이다. 살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고 싶은 것이다. 인혜는 은숙

이 해 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오늘 힘겨웠던 내 하루가 그리고 절망스런 내 상태가 무슨 이유나 의미가 있겠어요? 아까 이야기 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내 고통을 보고 어떤 의미를 찾는다 한들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파하는 동안에도 기분 좋은 일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야만 난 다시 내일을 기다릴 수 있죠. 언젠가 다시 일어나 춤을 출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설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꿈꾸며 살아가는 동안은 절망 속에도 묻히진 않겠죠. 그게 중요해요. 4년을 버티오면 터득한 거랍니다. 그래서 난 하스킬의 음악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내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거라 믿는 거구요.”

움직일 수 없는 두 다리를 가진 은숙이 춤출 수 있는 내일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표정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은숙이 말해준 대로 고통과 슬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ն 후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일까? 그것이 맞는 것일까? 이제까지 혜숙은 원래 삶은 아프고 속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었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했었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 인혜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슴 아팠던 순간마다 삶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였고 그것이 옳은 사실이라고 여겨왔다. 그 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은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혜는 알 수 있었다. 내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 것이냐는 오로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누군가 규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 작

너의 말은 가재가 되어

백경아 국어국문 3

너의 말에서 가재가 튀어나왔다.

날카로운 집게 발

나는 가재에게 물렸다.

너의 말에 물렸다.

그 후, 물린 상처에 아파하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빙그레 웃는다.
명자국도 눈물도 나를 따라 웃는다.
귀를 막고 지워보고 싶었지만
시크하고 잘생긴 너의 말은 내 몸의
고열이 되어 40도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시 작

4월, 벚꽃나무 밑

김소학 국어국문 4

퍼렇게 멍이 들어버린

누이의 마른 가지 앙상한 팔목

벌써 수차례 찢러 넣은 주사 바늘 자국

시리도록 차갑고 아픈 수액이

온 몸 내 혈관 속을 흐른다.

병원을 나와 더듬더듬 흘러가는 길 위
태양이 남은 빛을 거두어갈 무렵
낮과 밤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어둠이 어깨를 들고 기지개를 켜다.

누이의 눈물이 지나간 자리마냥
달빛에 빛나는 허연 소금밭처럼
계속되는 가로등 밑 벚꽃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간헐 슬픔이 울 곳을 찾지 못해
가슴에 배어있던 핏방울 고이고

겨우내 김숙이 간직했던 상처
온 밤 비명소리 한 번 내지 않은 채
나무는
제 몸에서 걸러낸 울음을
하얗게
허공에 흩날리고 있었다.

아픔이 되었던 시간은
애틀한 꽃이 되고
끝끝내 속내를 감추었던 눈물은
향기 실린 바람 속에 흩어진다.

소리없이 터지는 꽃봉오리
눈물 일렁이던 누이의 노동자
꽃에만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눈물에도 색깔이 있었다.

헛기증을 받아먹은 사람처럼
땅에 손을 짚어야만 했던
벚꽃나무 아래 소용돌이
어두운 밤
누이의 눈물은 그렇게 그칠 줄 몰랐다.

소설 심사평

주제, 플롯, 문장력 두루 갖춘 수작

이런 백록문학상 소설부문의 응모작은 3편에 불과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응모자가 적었던 경우가 없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사에 임했다. 하지만 적은 응모작 속에서도 좋은 작품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여자」는, 가정에 불충실한 남편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는 30대 주부의 일상을 일기 형식으로 그려낸, 수준 이하의 작품이다. 약 5년 동안 전개된 자연에서 뿔아낸 수십 편의 일기가 비슷한 루틴의 반복으로만 비취질 뿐이다. 일기장에 끼적거린 내용을 적당히 뿔아온다고 소설이 되겠는가. 오·탈자가 부지기수인 데다가 같은 부분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채 두 번씩 나오기도 하는 등 퇴고조차 하지 않은 글이다. 성실성부터 갖추기 바란다. 「어름의 동요」는 현대인의 삶 속에 내재된 폭력과 그에 따른 왜곡된 소통구조의 문제 등을 짚어내고자 하였다. 군대에서의 성폭력과 관련된 조작과 회생, 일상과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양상 등을 동원하여 그러한 문제를 포착하려 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이 작품을 쓴 학생은 작가로서의 자질을 어느 정도는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결맞는 문장을 통해 어설픈 기교를 부리려고 한다는 것이 큰 약점이다. 반점(심표)을 남발하고 온점(마침표)을 적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면서 비문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어깨에 힘을 빼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작품을 쓸 수 없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클라라 하스킬을 위한 하루」는 탄탄한 플롯 속에 전개되는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피아노 연주자인 곱사등이 소녀가 어머니의 뒷바라지, 수녀의 도움과 격려, 하반신 마비 환자와의 만남과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장애로 인한 고통과 한계를 갉내어 나가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인기 여배우의 자살, 성가대 세 반주자의 등장 등의 사건과 대비하는 가운데 운명의 손길에서 당당해지려는 소녀의 태도가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제시된 소설이다. 결말이 다소 안이하게 처리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문제의식이 진지하고 문장이 안정된 점을 높이 사서 당선작으로 뽑는다. 더욱 정진하여 작가로서 대성하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오윤식(소설가), 김동윤(문학평론가)	자신이 이제껏 생각해 온 것과는 달리 은숙이 왜 클라라 하스킬의 음악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때마침 버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야경 또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음악처럼 반짝거리는 게 참 예뻔다. 문득 인혜는 답을 찾으면 참 어려운 질문들만 가득한 자신의 생각들을 고집을 부리며 갖고 있기로 담 그저 놓아두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이렇게 두는 건 어떨까, 무언가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뭔가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하기도 말고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인혜는 어렸을 적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혜숙이 사는 게 별 거 있냐, 그냥 사는 거지. 하고 말하는 것이 무척 싫었다. 하지만 웬지 지금은 예전에 가졌던 그 느낌과는 참 다르게 다가왔다. 은숙이 오늘 자신에게 해 준 이야기들은 이제껏 자신이 필요했던 무언가였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클라라 하스킬이 고통을 참으면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까닭을 이제 알 것 같았다. 운명의 손길 앞에 가장 용감하고 적극적이라면 그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나아가 웃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리라. 어느 새 버스는 인혜의 동네에 이르렀다. 인혜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내일 다시 교회를 찾아가 베로니카 수녀님을 만나 일요일 미사에 쓰일 곡을 의논해봐야겠다. 그리고 은숙씨를 찾아가 제대로 나를 소개하고 인사해야지. 씨디를 가져가서 은숙씨에게 클라라 하스킬의 음악을 들려주어야겠다. 그러면서 인혜는 앞으로 일요일 미사 때마다 전자건반으로 반주하며 노래를 부를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아직까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 알 수 없는 없지만 그래도 인혜는 상상하는 동안 흐트하게 웃을 수 있었다. 〈끝〉
--	--

시 작

소감

헤어졌던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쓴 시가 가작으로 당선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부끄럽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가슴 속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시창작 수업을 받으며 윤석산 교수님께 지적도 많이 받고 격려도 받으며 '시' 라는 것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창조하는 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글을 쓸 때면 어릴 적 원고지에 글짓기 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헤어졌던 친구를 만난 것 같다. 다시 만난 친구와 좋은 인연이 되라고 이 상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 한다.
글을 쓸 수 있는 값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작품이지만 용기를 주신 심사위원님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백경아(국어국문 3)

시 창작은 스스로 위로받는 노래

시는 비범한 재능이 없는 한 다룰 수 없는 어려운 악기 같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툰 실력으로 연주했다가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만 만들어 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연습해도 아름답게 연주 할 수 없으리라, 오로지 재능있는 시인들만 다룰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시에 대한 이런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과 삶의 모습을 그려내며 노래하는 일은 그것을 듣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리고 부족한 제겐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를 쓰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음악이 되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삶, 그리고 그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노래가 될 수 있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는 우리의 삶을 음악처럼 만들 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색을 가지지 않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가벼운 스텝으로 춤을 추며 음악 속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김소학(국어국문 4)



무론유설

현해남
생물산업학부 교수

어디에나 앞자리와 뒷자리가 있다. 학교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고 야구경기장에도 있고 유명가수 공연장에도 있다. 늘 앞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고 뒷자리에 뒤흔치는 사람도 있다.

자리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오케스트라는 자리에 따라 관람 가격이 크게 다르다. 무대에 가까우면 좋은 위치일 수록 입장료가 비싸다. 유명가수의 콘서트도 자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다. 지난 겨울에 SG 워너비 콘서트 입장료는 B석이 3만 원 정도였는데, VIP 석은 세 배가 넘었다고 한다.

피아노 독주회에서는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보이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 피아노 줄을 통해 나가는 음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 자리 선호하는 사람도 있

고 손보다 화려한 페달링을 보기 위해 왼쪽 맨 앞쪽 자리 선호하기도 한다. 모두 연주자의 호흡과 감정을 느끼기 위한 것일 것이다. 농구경기장은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먼저 입장해서 좋은 자리를 잡으면 된다. 야구경기처럼 지정석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가격이다. 그러나 부지런해야 앞자리에 앉는다.

앞자리와 뒷자리 번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도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는 생년월일이지만 뒷자리 숫자만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출생 신고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자리에 따라 성격과 성취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미국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심리학 교수인 골드 박사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학창시절을 소개했는데, 공통적으로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이다.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

은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인데, 성취욕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지런함의 표현이라고도 한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언제나 앞자리에 앉거나 앞쪽에 선다는 것이다.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것을 의미하고 뒷자리에 있는 것은 소극적이고 방관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졸업하고 난 후에 사회에서의 역할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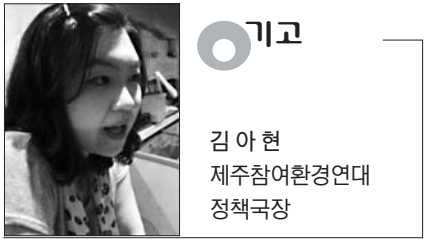
앞자리와 뒷자리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강의실이다. 앞자리에 앉는 학생의 학점이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반대로 뒷자리에 앉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는 경우도 드물다. 그래서 강의가 몇 번 진행되면 좋은 학점을 받을 학생은 거의 정해진다. 강사의 표정까지 읽으면서 강의를 듣는 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뒤뚱수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강사의 강의를 듣는 학생의 차이가 나

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강의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다. 강의는 강사의 원(圓, circle)과 학생의 원이 서로 만나서 겹쳐지는 장소이다. 그래서 강사와 학생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수록 서로 좋은 강의이다. 강사가 갖고 있는 원이 지식만 담아놓은 그릇이 아니고, 학생이 갖고 있는 원도 단순히 지식을 담기 위한 그릇만은 아닐 것이다.

강사와 학생의 원이 겹쳐지는 정도도 앞자리나 뒷자리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로 가까이 있는 원은 겹치기가 쉽다. 강사와 가까운 앞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 사이에는 지식과 표정과 생각과 성격도 겹쳐져 간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뒷자리의 원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습관적으로 앞자리에 앉는다. 앞자리에 앉다보면 결국 뒷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이다.



기고

김 아 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

필자는 2011년을 눈물로 시작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 아니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는 세상 소식, 심정적으로 감당하기가 매우 버거웠다. 각각 다른 곳에서 일어났으나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던 몇 가지 사건 때문이었다.

음원 저작권료를 도토리(사이버머니)로 지급받다 죽은 인디뮤지션, 지병이 있음에도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해 '치료받지 못하고 굶어' 죽은 젊은 시나리오 작가, 대학에 합격하고 등록금을 받기 위해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열아홉 남자아이. 이 모든 것들이 젊음과 열정을 담보로 착취당하다 냉정하게 내쳐진 절망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죽음들에 대해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다'는 훈수를 두며 착취를 정당화하는 세상의 말들은 맨정신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아팠다.

그 훈수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노동의 대

가를 받지 못했을 때 정당하게 '항의' 하는 게 아니라 투잡(two-job)을 가져야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상한 나라다. 또 사람을 한달 자원으로 여겨 '교육인적자원부'가 있었음에도, 그 교육에 들어가는 제반의 비용은 개인이 감수해야하는 이상한 나라다. 공부하겠다고 돈을 벌다 목숨을 잃어도, 그저 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는 이상한 나라다.

한 해의 시작을 흑독하게 앞섰으니 차츰 나아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경영이 어렵다며 노동자를 대거 해고한 후 저액의 성과금을 몇몇 임원들이 나눠 갖는 나라, 부당함을 알리려면 목숨 걸고 크레인에 올라가 180일을 살아야 하는 나라, 화장실에 물레 숨어 밥을 먹어야 하는 청소년노동자들이 있는 나라, 아파트값 떨어진다며 단지 내 공동시설에 장애인 입주민을 못 오게 하는 이웃들이 사는 나라, 대통령 공약 지키라고 요구하는 대학

생들이 빨갱이로 몰리는 나라. 뉴스를 보고 글을 읽는 모든 순간이, 내가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 자각하게 했다.

그리고 '이상한 나라' 예의 자각이 '미친 세상'이라는 절망으로 발전한 것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음'을 넘어 '당신의, 목숨 건 절절한 투쟁이 나에겐 생활의 작은 불편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회악'이라는, 엄청난 논리의 비약이 유통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인디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좁음>이라는 곡이 큰 공감을 받는 이유는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하는 가사가 주는 가우뚱함이 카타르시스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하기 힘들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 행복을 빌어주는 것, 혹은 누군가 내 행복을 빌어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세상이 아픈 곳이라는 자각. '과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누구도 뚜렷이 답을 주지 않는 세상이라는 자

각 같은 것들이 노래를 듣는 순간을 스쳐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 답은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뉘미러의 유명한 詩를 인용하는 것으로 같음해도 좋겠다. 어쩌면 이 시는 답이 아니라 글을 읽는 여러분께 조심스레 건네는 또다른 질문일 수 있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다음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르틴 뉘미러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독짜기고

현 치 훈
사회학과 4학년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도가 넘는 뜨거운 햇살과 장맛비 속에서도 조곤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뜨겁다. 이화여대와 연세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9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학생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그대로 부모의 부담으로 가중된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도 크게 오르고 있어 서민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도 비싼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여가생활의 제한, 개인의 공부시간 그리고 일한만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임금 등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위해 희생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다.

제주대학교의 등록금을 살펴보면 2011학년도 기준 인문사회계열이 연간 341만원,

자연과학계열이 449만원이며, 평균 등록금은 402만원이다. 물론 대학생 사이에서는 수도권 사립대와 비교해서 많은 등록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2009 제주도민 1인당 개인소득은 1241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1301만원)에 비해 적고 서울의 1580만원보다 크게 적다. 이와 비교했을 때 제주대의 등록금이 싸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2005년 이후 줄곧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경기지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농가구당 부채는 4017만2000원이며, 제주도 농가구당 소득 3503만7000원보다 높다. 제주도민 1인당 부채 비율은 194만8000원으로 단연 전국 최고다.

이러한 제주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제주도민에게 지금의 등록금도 비싸진 마찬가지이다.

과연 어려워만 가는 제주도의 경제상황과 비교해볼 때 지금의 등록금이 비싸지 않

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주변에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달려가는 친구들이 많다. 등록금이 정말 부담스러워 휴학하는 친구도 있다.

장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체력적으로도 피로를 느끼게 되어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힘들고 학업에도 뒤처질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젊은이라면 누리고 싶은 일상의 자유 또한 만격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구조 속에서 돈이 없으면 공부도 하지 말고 취업도 하지 말란 소리다. 교육의 불평등은 바로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등록금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로도 직결된다. 이것들이 88만원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겪는 고충이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등록금을 줄이고 일상의 자유와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등록금을 줄이면 장시간 아르바이트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대학생들의 고충은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사회에 나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의 경쟁력 저하까지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고 대학생들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와 정치권은 한 사안의 이슈를 잠재우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조건, 청년들이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려운 조건, 취업이 해도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사회 등 등록금의 문제, 최저임금, 청년실업, 비정규직문제 우리사회 전반적인 청년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청년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아픈 시절을 견디느라 청춘이 靑春이 아닌 우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독짜기고

얼마 전 열렸던 아라대동제를 즐기는 도중 여기저기에서 담배 연기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물론 법적으로는 대학 건물 내에서의 흡연만 금지되지만, 여기저기서 뽕이대는 담배연기와 잔디마당에 푸르는 담배꽂초는 인상을 찌푸리게 하였다. 간접흡연이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롭고 비흡연자들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 곳이나 버려진 담배꽂초는 화재의 위험까지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흡연이 대학 건물 내에서

도 종종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건물 내의 화장실에서도 담배냄새가 나곤 한다.

흡연자에게 담배는 잠깐의 휴식과 정신적 위안일지 모르겠지만, 비흡연자들에게 담배연기와 냄새는 고통 그 자체일 뿐이다. 물론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 잘 지키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지만, 사실상 캠퍼스 내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

역 스티커를 본 기억이 없다. 물론 흡연구역이라고 따로 지정해놓은 곳도 본 적이 없다. 경북대학에서는 2011학년도 입학식과 더불어 전체 캠퍼스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교수 및 교직원 등 학생 스스로가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금연장소 홍보와 함께 금연 캠페인 홍보까지 더불어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건강에 백해무익한 담배일지라도 흡연자들에게 무조건 금연을 강요하여 그들

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만의 권리를 존중하여 흡연실을 만들고 흡연실 외의 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떨까?

건강한 캠퍼스를 위하여 흡연자들은 남을 위한 배려를, 대학에서는 제도적 보안을 위해 노력한다면 더 나은 캠퍼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성의 전당 대학, 지선인들의 장소인 만큼 기본적인 예절은 지키는 성숙하고 절제 있는 자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지윤(윤리교육과 1)

동문칼럼

젊은 청춘들과 함께하는 반란을 꿈꾼다

나는 누구인가?

지난 2월 제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사회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지금 제주대신문을 읽고 있는 제대 학생들이 거의 토레라고 볼 수 있다. 학우이자, 동기였을 제대학우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먼저 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 테니.

현재 나는 정당에서 일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 나의 대학생활을 말한다면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3학년이 되어서는 학업에 매진했다. 취업전쟁에 매진하기도 했고, 토익책을 파기도 했다. 그랬던 내가 정당에 들어오고 다양한 사회를 접하게 됐다. 누군가는 정당이라고 하면 굉장히 한가한 줄 알지만, 정작 그렇지 못하다. 간혹 커다란 웅덩이에 걸려 넘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겨우 언덕을 넘는 것 같을 때도 있다.

사회에 나온 이들이 나와 비슷한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두커니 간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한 사람만이 잘한다고 해서 인정받거나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럿이 제대로 움직여야만 힘있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든 시민단체이든 조직력과 대중력에 있어 한계를 경험한 다.

하나라보다는 '함께' 하는 반란을 준비하자.

잘 아는 활동가 중 한명이 현재 제주대에 재학중이다.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강경해군기지 문제에 열을 내고 참여한다. 조직화하고 사람들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한 움직임에 간혹은 재 뿌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는 선배에게서 '너, 운동권이었나?' 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한동안 충격에 빠진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오랜만에 동문을 만나니 '난 네가 학교다니 때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게 뚜렷한 줄 알았어' 라는 소리를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자기반성이 들었다. 간혹은 이렇듯 사회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운동권'으로 낙인찍히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없이 활동하는 젊은 청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운동권이면 어떠한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단지 옳다고 생각하기에 갈 뿐이다.

나는 사회학도였다. 학부 때는 주로 토론을 하고, 사회에 대한 논의와 대안 찾기에 열을 올리던 많은 학우 중 한명이었다. '사회운동'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사회운동을 일으키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가 바라던 운동의 형식을 꾸리는 것에 있어 현실은 아직 힘들다. 그리고 지금의 운동은 많은 젊은이의 눈으로 봤을 때, 멋있고 불만해보이는 움직임이기 도 하다. 하지만 '함께' 하면 다르다. 더



김민선(사회학과 06학번)
진보신당제주도당 총무부장

젊고 감각있는 운동이 될 수 있다.

지난 6월 15일 제주지역에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그리고 진보신당 제주도당이 그 구성체이다. 매우 수요일마다 모여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촛불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젊은 청춘들의 참여는 낮다. 운동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젊은이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방법은 언제나 찾을 수 있다.

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변화를 주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책을 아무리 파고, 현실을 아무리 부정해도 현실의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이 되고자 많은 이들이 준비한다.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한다. 조금만 빠끗해도 넘어지는 것 같고 뒤흔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작심삼일을 수차례 반복하며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오르는 사다리가 건너차이는 느낌을 받는다면 어떠한가? 자기 잘못이라고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실상이 어떠한지를 생각해보자. 준비된 소수자는 잠깐의 인정을 받고 또 다시 약삭같이 고지를 찾는다. 그 뒤에는 정상을 향해 뒤흔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최정상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정상이 채워지는 순간, 정상을 오르는 사다리는 건너차여 질 수 있다.

그러하기에 똑같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예술을 잘하는 사람은 예술을, 노는 걸 잘하는 사람은 노는 것을, 그것도 아니라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는 한가지의 확일화된 길이 정당한 것처럼 제시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사회 문제를 밖에 요구하고 내뱉는다면 상황은 약간은 달라지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세상'의 문제가 아닐까 뒤집어서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혼자이면 되지 않던 것도 여럿이면 변화할 수 있는 '함'이 생긴다. 그게 조직력이자, 운동의 힘이다. 제주도내의 젊은 청춘들이 지금 웅기종기 모여 세상에 불만을 토하고 있다. 불평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미친 세상에 반기를 들 웅기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느리지만 천천히 세상을 바꿔보자!

학생생활관 의무급식 제고해야

독짜기고

약 1년 동안 기숙사를 내 집처럼 지냈지만, 도저히 학생생활관 급식은 내 집 밥처럼 대할 수가 없다. 학생생활관 급식은 의무식으로 미리 선금을 내고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생활관 학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불 내는 밥집은 서빙스가 안 좋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듯하다.

행정실은 '급식은 의무식이며, 업무 관리에 차질이 있다'라고 일관하였다. 누구를 위한 학생생활관인지 이해가 되는 않는다. 학생생활관처럼 측식에서 발급하는 '쿠폰제'라든가, 후불 급식을 시행하는 일부 모범적인 타 대학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 끼에 2000원이 되지 않는 식사이지만, 한 학기 관리비와 비슷한 금액인 만큼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학생생활관 내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조리 시설만 있을 뿐, 한국 학생을 위한 조리 시설은 없다. 컵라면으로 3끼를 모두 채우는 학생들이 학생생활관은 그저 냉정하게 대처할 뿐이다.

오영은(독일학과 2)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경상대학 1호관과 중앙도서관 청소를 했다. 경상대학에서 창문을 닦고(좌) 중앙도서관에서 계단의 미끄럼방지용 식를 닦았다. 모든 청소가 문지르고 닦는 동작을 씬 없이 반복하는 것이어서 청소노동자들은 근육통을 늘 몸에 달고 산다. 기자는 청소노동자 체험 후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앉아 누웠다.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

글/ 김순자(국어문화원)연구원
그림/ 허용준 특별기자

⑤ 마치다



날말풀이
의남·오남·오남·이남: 안개, 의남비: 안개비,
마치다: 장마지다,
우첫저: 일기가 흐리고 비 따위가 내리다,
하영: 많이

“캠퍼스 곳곳을 쓸고 닦는 청소노동자들에 감사하자”

● 용역 노동자 체험기 - 청소노동자

아침 7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캠퍼스를 가장 먼저 깨우는 이들이 있다. 바로 대학의 청소용역 노동자들. 학생들이 강의실로 밀려들기 전에 하룻밤 사이에 눌러앉은 먼지를 쓸어내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불어넣는다. 청소를 하다보면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버리지만 ‘내 아들 딸들이’ 지내는 공간이라 생각하며 손을 바빠 놀린다. 기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이들과 함께 경상대학 1호관과 중앙도서관을 직접 청소해봤다.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캠퍼스를 빛내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자.

<편집자주>

꺾속을 찌르는 악취,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주면...

경상대학 1호관 동쪽 입구에는 담배꽂조들이 전쟁터의 총알처럼 후두둑 떨어져 있었다. 바빠 지나갈 때에는 미처 눈에 띄지 않았던 담배꽂조들이 하나씩 줍기 시작하자 우후죽순 나타났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주워 담고 건물 앞 곳곳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쓸어 담았다. 쓰레기가 장맛비를 맞은 터라 일일이 손으로 긁어모아야 했다. 썩은 냄새가 숨 쉴 때마다 꺾속을 찌르고 종종 쓰레기통 안에 있는 벌레와 아침인사를 나뉘야 하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까마귀가 해집어 놓아서 난장판이 된 쓰레기통도 있었다.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자 썩은 내 나는 음식물쓰레기가 한 봉지 들어와 있었다. 학생들이 고기를 구워먹고 음식물쓰레기를 야외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 것이다.

“음식물을 실내에만 버려도 이렇게 까마귀가 해집

어 놓지는 않았을 텐데. 치우며 고생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눈살을 찌푸릴까 봐 걱정이야.”

한 청소용역 아주머니가 손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긁어모으며 말했다. 기자도 코를 틀어막고 아주머니를 따라 쓰레기를 모았다. 쓰레기는 커다란 봉지에 팍팍 눌러 담아 3봉지나 나왔다. 학기 중에는 하루에만 20봉지가 거뜬히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음식물과 종이, 캔 등이 엉켜있는 쓰레기봉투를 풀어헤쳤다. 모두 분리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으로 일일이 나누고 묶어있는 비닐봉투는 찢어서 내용물을 확인했다. 찢통 같은 날씨에 오랫동안 쭈그러 앉아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으니 얼굴에 땀이 쏟아졌다. 눈에 땀이 흘러들어가 눈가를 찌르고 싶었지만 손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어서 찡그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동판 가득 부황자국... 병원 가도 오후에 다시 출근

악취에 코가 얼얼하게 마비될 때쯤 쓰레기 분리가 끝났다. 학기 중에는 강의실마다 일일이 들어가 청소를 해야 하지만 방학 중이라 다행히 강의실 청소는 안하고 바로 화장실 청소로 넘어갔다. 아주머니가 변기를 닦는 사이에 기자는 대걸레로 바닥을 닦았다. 대걸레는 물을 틀어 놓고 위아래로 흔들며 빨아야 한다. 팔뚝이 빠근해질 때까지 흔들고 손으로 대걸레를 쥐어 짜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복도청소로 이어졌다. 구석에 눌러 앉아 있던 먼지들이 수북이 기름걸레에 달라 나왔다. 커다란 기름걸레와 대걸레를 손에 쥐고

쭉쭉 밀다보니 어깨가 아팠다. 시계를 보니 고작 11시였다. 벌써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하루가 다 저문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다. 걸음을 재촉하는 아주머니를 따라 창문을 닦으러 갔다.

모든 청소가 문지르고 닦는 동작을 씬 없이 반복하는 것이어서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근육통을 늘 몸에 달고 산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는 무거운 청소도구와 쓰레기들을 들고 종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서 관절이 남아나지 않는다. 일을 못할 정도로 크게 아프면 일주일은 쉴 수 있지만 대부분 웬만해선 병원에 들렀다가 다시 출근한다. 고된 노동에 휴식이 필요하지만, 주말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휴가나 연월차휴가는 없다. 한 아주머니의 등에는 부황자국이 가득 있었다. 벌건 자국들이 애처롭게 보였지만 아주머니는 소탈하게 웃어 보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경상대학 관리실에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배추된장국에 멸치, 콩자반 등 반찬은 소박했다. 평소라면 투정을 했을 법한 반찬들이 꿀맛같이 목구멍을 넘어갔다. 아주머니들은 난생 처음 고된 일을 하는 기자에게 “힘든일을 할 때면 속이 든든해야 한다”며 삶은감자와 설탕을 뿌린 토마토도 내어 주었다.

숨죽여 일하는 중앙도서관... 시험기간만 되면 몸살

다음날 새벽, 알람소리에 재깍 눈을 떠야 했지만 온몸이 육신거려서 제대로 일어날 수 없었다. 결국 아침도 거르고 혈레벌떡 중앙도서관으로 뛰어갔다. 아주머니들은 벌써 나와 청소준비를 마치고 계셨다. 숨을 헐떡대며 첫인사를 드리자 숨을 돌리고 청소하러 가자며 시원한 물을 한잔 주셨다. 아주머니는 손수 이마와 목에 손수건도 매어 주셨다.

불법주차 보행불편 초래, 허위출입증 붙여놓고 시치미에다 되레 화내기도

● 용역 노동자 체험기 - 교통관리노동자

하루에도 수십번씩 자동차를 향해 이리저리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 학내 교통관리를 하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자동차 운전자들과 씨름을 한다. 더운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자동차 통제 업무를 하는 그들. 기자는 하루 동안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학기 중과 방학 중에 하는 생활을 밀착 취재했다.

출입증 위조하고 되레 화내는 학생들

이들이 하루에 하는 일은 대학 정·후문 교통관리, 도서관과 학생회관·본관 주변 정리, 불법 주차 단속, 야간 순찰로 구성돼 있다. 총 7명의 노동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한다. 정문과 후문에서 하는 교통관리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출입증을 확인하고 없는 운전자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교직원들이 출퇴근하는 9시 경이나 18시 경에 자동차를 통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출입증을 일일이 검사할 경우 교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장용원(교통관리)씨는 “한번은 출근 시간에 출입증을 검사하다가 제주여고까지 차가 밀려서 운

전자들에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며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교통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관리 직원이 자동차를 통제하면서 욕을 먹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교통관리를 하다보면 양심을 팔아 버린 운전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바로 출입증을 위조하는 사람들이다. 현재 우리대학에서는 약 25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 전부가 교내에서 차를 몰도록 할 수 없다. 그래서 1·2학년에게는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고 대신에 순환버스를 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의 출입증을 빌려서 번호만 새로 쓰거나 출입증을 컬러복사해 위조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들은 늘 진땀을 뻐다. 막상 위조 출입증을 가진 운전자를 잡으면 “아저씨가 뎀데 나를 잡는 거예요”라며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한다. 날이 선 대답에 마음이 아프지만 이들은 맑은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특히 대학의 지성으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 교수님들마저 화를 내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프단다.

점심식사는 교대로... 바쁠땐 5분안에 해치워야

아침 교통관리가 끝나고 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이들의 점심시간은 일반 교직원들과는 조금 달랐다. 교직원들은 친한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는 반면 교통관리 노동자들은 근무서는 사람과 교대해가며 한명씩 밥을 먹었다. 더구나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동시간을 포함해서 단 40분.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날에는 5분 안에 밥을 접사게 먹고 나와서 바로 교대를 해줘야 한다. 밥을 먹고 담배라도 한 개비 피우고 근무를 서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그나마 방학 때는 학생들이 적고 점심시간도 1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다.

점심식사 후에는 도서관·학생회관·본관 주변을 정리하고 주차를 관리했다. 세 곳에는 모두 ‘차 못 세움’이라는 표시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딱하니 그 앞에 주차를 하고 있었다. 한 글로 ‘차 못 세움’이라고 적어도 지켜지지 않으니 다음부터는 차라리 영어로 적어야겠다는 못지 못할 농담도 들린다. 또한 도서관 주변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는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다. 한 노동자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상습범들이라고 한다. 너무 자주 보아서 이제 친근할 정도라고. 이처럼 상당수의 제주대인들은 주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면 야간 순찰을 맡은 직원이 오후 7시



지난달 30일 본관 앞에서 출입증과 차량번호를 대조하고 있다.

와 11시, 새벽 4시 30분 경에 학교를 한 바퀴 돌면서 순찰한다. 한 번 순찰할 때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비되기 때문에 숙직자들은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다. 무거워 보이는 눈꺼풀을 부릅뜨고 근무에 나선다. 밤 11시 경과 새벽 4시 30분 순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각 대학의 불을 끈

다. 대학 건물의 전등이 하나 둘 꺼지며 이들의 일과도 저물어 간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며 땀을 흘리는 교통관리 노동자들.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권해모리 기자